

複寫本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韓調查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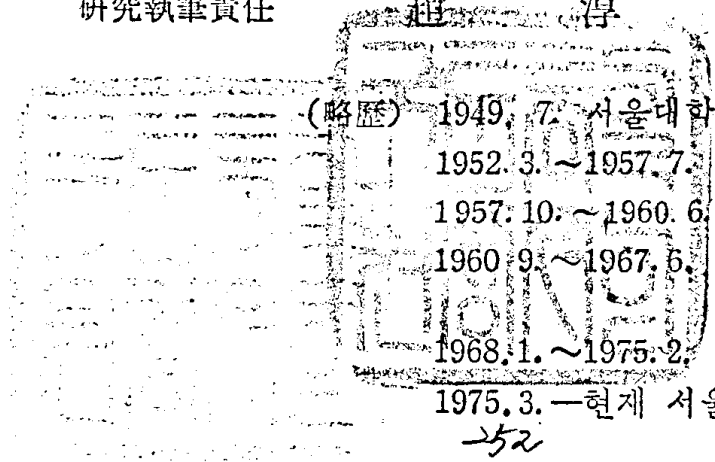
北韓體制 및 社會豫測

(經濟編)

3510
323-12 (320-911)
89P
26000

研究執筆責任

趙淳



(略歷) 1949. 7.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전문부
1952. 3. ~ 1957. 7. 육군사관학교 전임강사
1957. 10. ~ 1960. 6. Bowdoin College, Brunsw
1960. 9. ~ 1967. 5. Univ. of California, Berkel
경제학박사
1968. 1. ~ 1975. 2.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교수
1975. 3. -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대학장
252

刊行責任

李世震 (調查研究室 補佐官)

Handwritten notes and signatures in the bottom right corner, including the number 7621.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第 1 章 序 論	3
第 2 章 北韓經濟体制의 時期別 發展過程	8
第 3 章 北韓의 主要經濟政策의 基調	25
第 4 章 北韓經濟의 部門別 實態와 問題點	44
가. 國家財政의 機能과 現況	48
나. 農業集團化와 生産現況	49
다. 賦存資源과 産業現況	52
라. 貿易規模와 國際收支	55
第 5 章 經濟体制의 長期展望	59
가. 短期的 側面에서의 變化予測	61
나. 長期的 側面에서의 變化予測	69

北韓体制의 長期豫測

北韓經濟는 北韓政權後 처음으로 1949 ~ 50 年에 걸쳐 「人民經濟 2 個年計劃」을 樹立하였고, 6.25 以後에는 1954 ~ 56 年에 걸치는 戰後復旧 3 個年計劃을 통하여 戰災로부터의 復旧를 도모하였으며, 1957 ~ 60 年까지는 1 次 5 箇年計劃을 立案하고 執行함으로써 重工業의 優先的發展 및 輕工業과 農業의 同時的發展을 標榜하는 經濟構造를 構築하였다.

1961 年부터 67 年까지는 第 1 次 7 個年計劃期間으로, 이 무렵부터 北韓經濟는 戰爭準備를 겨냥한 重工業 爲主의 自給自足体制의 無節制한 推進과 中央集權的인 計劃의 樹立과 執行으로 말미암은 非効率을 露呈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7 個年計劃은 3 年을 延長하여 1970 年까지 持續되는 事態를 빚게되었다. 1971 ~ 76 年은 6 個年計劃期間인데, 北韓經濟의 體質的 痼疾은 이 期間동안에도 조금도 緩和되지 않아 北韓의 經濟的 苦境은 北韓에서의 政治的 混亂과 東北亞를 둘러싼 國際政治의 亂氣流와 相乘하여 더욱 混迷를 거듭하게 되었으며 1977 年은 이른바 「緩衝의 해」로 定하였으나 결국 6 個年計劃은 그 重要目標을 未達한 채 끝나고 말았다. 今年(1978 年)부터는 지난날의 經濟計劃보다는 좀더 現實的이라고 생각되는 새로운 第 2 次 7 個年計劃이 推進되고 있으나, 北韓經濟가 當面하고 있는 苦境은 앞으로도 繼續 緩和될 徵候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繼續되는 失敗에 點綴된 이들 計劃과 政策의 基本目標은 軍備의 增強을 겨냥한 重工業의 建設을 主軸으로 하는 自給自足 經濟體制의 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目標을 追求하기 위하여 1930 年代의 스탈린時代의 蘇聯의 計劃方式을 그대로 模倣한 中央集權的이고 硬直的인 計劃의 立案과 執行方法이 採択되어 왔다. 北韓經濟의 今日的 苦境의 遠因은 이 計劃目標의 不合理性和 計劃方法의 非效率性에서 찾을 수 있다. 즉 重工業 爲主의 自給自足經濟의 달성은 極度の 經費抑制과 이로 말미암은 住民의 生活苦, 産業間의 需給의 不均衡等 構造的인 痼疾을 나타내게 하였으며, 極端的인 中央集權的인 計劃과 그 執行은 經濟活動에 있어서의 誘因의 壓殺, 技術 進歩의 欠如, 官僚主義의 蔓延, 恣意에 의한 資源의 配分等의 弊端을 造成한 것이다. 이들의 欠點은 모든 共產國家에 共通的인 것이기는 하나 北韓에 있어서의 이들 病弊는 어떤 다른 共產國家에 비하여도 尤甚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北韓 當局은 1960年 上半期이래로, 점차 더하여가는 이들의 痼疾을 緩和하기 위하여 70年代初부터는 西方諸國으로부터 外資를 導入하였으나, 이것은 北韓經濟의 外資受容 能力의 欠乏으로 말미암아 北韓이 外債를 加重시켰을 뿐, 北韓經濟가 지니는 短點을 別로 補填해 주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1976年 12月부터는 經濟實務家들이 內閣에 拔擢되어, 經濟의 合理化 내지 科學化에 注力하고 있으나, 아직 實効를 거둘 段階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으며 現在의 苦境은 오히려 北韓으로 하여금 지난날에 있어서보다 더욱더 閉鎖的인 政

策을 취할 可能性마저 있는 것이다.

北韓經濟의 主要部門을 一覽하면, 우선 農業은 現在 約 3,700 個의 協同農場과 國營農牧場으로 構成되는 集團農業經營體制를 이룩하여 共產圈內에서도 가장 硬直的인 農業經營이 強要되고 있다. 農民은 自發的인 營農方法이나 技術의 開發을 할 意慾이 없으며, 生産実績도 오히려 低調한 것으로 評價된다. 社會間接資本은 특히 輸送能力의 不足으로 物動量의 增加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며, 自動車道路網은 極히 原始的이다. 重工業中에서도 가장 現代的인 部門인 石油化學部門은 北韓이 가장 脆弱한 部門이라고 할 수 있다. 北韓이 지난 30年 동안에 가장 力點을 두고 開發한 分野가 動力部門과 工作機械工業이라고 할 수 있으나, 自給自足體制의 限界는 여기에도 嚴然히 作用하고 있으며, 輕工業部門은 質量兩面에 있어 크게 落後되어 있다.

北韓은 1972年頃부터 西方諸國과의 貿易을 擴大하고 西方諸國으로부터 外資를 導入할 것을 試圖하여, 많은 工場을 建設하였다.

그러나 受容能力을 超過하는 外資의 導入은 建設된 工場의 稼動을 어렵게 만들었고 北韓의 外債償還能力의 不足으로 말미암아 外債償還의 延滯를 不可避하게 하여 75年度에는 貿易規模마저도 減少하는 現象을 빚었다. 앞으로 北韓經濟는 繼續 外債償還能力의 制約으로 말미암은 苦境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短期的(約 5年以後까지) 또는 長期的(約 10年以後까지)으로 보아 北韓의 體制는 變化할 것인가, 아니면 現在의 體制가 그대로

로 維持될 것인가? 또 北韓의 經濟成長率은 어떻게 되겠는가?

우선 經濟成長率에 관하여 본다면, 北韓經濟로 하여금 60年代 上半期까지 比較的 順調로운 發展을 하도록 만들었던 外延的成長 要因, 이를테면 順調로운 勞動의 供給 및 遊休生産要素의 存在들이 이제는 거의 枯渴되고 앞으로 北韓經濟가 發展을 하기 위하여는 이른바 集約的 發展(intensive growth)의 要因, 이를테면 技術, 의 進步등이 開發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날의 北韓經濟의 苦境은 이 集約的 發展의 要因이 前記한 바와 같은 北韓經濟의 目標과 硬直的인 計劃體制로 말미암아 쉽사리 開發되기 어렵다는데 緣由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當分間은 이처럼 重要한 集約的 發展要因이 發見되기 어려울 것으로 展望된다. 따라서 北韓經濟는, 상당한 體制變化가 없는 限 相當한 成長率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展望된다.

北韓經濟가 必要로 하는 體制의 變化란, 첫째 지금과 같은 閉鎖的인 政策을 止揚하고 真正한 의미에 있어서의 對西方 經濟協力을 摸索할 것, 둘째, 重工業為主, 軍備增強爲主의 經濟政策을 止揚하고 民生을 위한 經費財生産에 좀더 注力할 것, 셋째, 中央集權的인 計劃方式을 緩和하여 地方分權制度를 擴大하여 民間의 創意性을 助長하는 同時에 利潤制度를 도입하고 價格機構를 통한 資源의 配分の 經路를 擴張할 것 등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 重要한 經濟體制의 改革도 北韓에 곧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할 理由는 그리 強하다고 할 수 없다.

短期的으로는 앞으로北韓의 經濟體制는 經濟實務家들의 立場에도 불구하고 크게 變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展望된다. 특히 金日成-金正一의 指導體制가 繼續되는 한에 있어서는 이들 一連의 體制改革은 兩金の 지금까지의 政治路線과 正面으로 矛盾되므로,北韓의 體制는 全体 經濟의 運營도 計劃, 産業間投資의 配分, 輸出入政策, 國防費등 어느 하나도 大幅的인 變化가 일어날 要因이 稀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短期的으로는 體制變化의 抑制 要因이 體制變化의 促進要因보다 더 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體制變化의 促進要因이 그 抑制要因보다 더 強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金日成-金正一의 指導體制가 變更된 다면 變化는 더욱 促進될 것이다.北韓의 經濟는 體制의 緩和를 切實히 渴望하는 段階에 와 있을뿐 아니라, 앞으로 中共의 開放政策이 어느 정도의 成果를 거둔다면 이는 必然的으로北韓에 대해서도 상당한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北韓에 있어서는 長期的으로도 現在의 中共이 試圖하고 있는 바와 같은 大幅的인 體制 내지 政策의 變化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끝

第 1 章 序 論

本 研究報告書는 1978年 国土統一院의 委囑課題인 「北韓体制의 長期予測」中 經濟部門을 檢討하기 위하여 試圖한 것이다.

一般的으로 資本主義經濟体制는 그 利潤追求의 手段을 價格機構에 依한 自由競爭에 根拠를 두고 있기 때문에 資本主義經濟体制의 發展過程은 「슈페터」(Joseph A. Schumpeter)가 指摘했듯이 「持續的인 變化의 連續」^{註 1)}(Process of Change)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이같은 變化過程은 時代와 國家에 따라 여러 形態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古典學派」의 自由放任思想(Laissez-Faire)이라든가, 1930年代에 대두한 「Keynes」學派의 財政, 金融政策을 통한 雇傭理論을 위시하여, 2次世界大戰 以後에 나타난 後進國開發問題에 있어서는 即, 「로스토크」(Walter Rostow)가 말하는 「跳躍의 先行條件」^{註 2)}을 어떻게 準備하느냐 하는 問題 등 經濟構造를 形成하고 있는 客觀的 條件에 따라 各己 多樣한 現象을 볼 수 있다.

한편 오늘날 蘇聯을 비롯한 共產圈諸國에 있어서도 이미 지난 1960年代에 들어오면서 多樣한 變化를 보이기 始作하고 있는데, '60年代에 들어와서 蘇聯首相 「후루시초프」는 共產陣營内部에 對해서 社會主義의 多樣性, 指導體制에 있어서는 集團指導體制 그리고 對西方關係에 있어서는 競爭의 共存을 宣言하였다.

또한 蘇聯의 20次 共產黨大會以來 東歐衛星國에 對하여 「社會

主義의 民族路線」(National Road to Socialism), 「社會主義의 多樣性」(Diversity of Socialism)을 是認함으로서 外交와 軍事問題에 있어 蘇聯과의 行動統一을 기하는 外에 國內問題에 對한 民族共産黨의 自律性을 許容하는 方向을 取하게 되었다.

이와 同時에 오늘날 蘇聯을 包含한 東歐諸國은 그들 經濟發展과 技術의 向上, 國民生活水準의 向上을 達成하기 爲하여서는 그들 經濟體制의 質的인 改革이 必要하다는 事實을 認識하게 되었으며, 特히 生活水準의 向上과 對西方關係의 擴大를 바라는 壓力이 여러 側面에서 이같은 經濟改革을 不可避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卽 各國의 國內條件에 따라 相異한 점은 있으나 1960年代에 들어와서 東歐諸國의 經濟改革은 企業의 自律性을 顯著히 增加시키고, 市場經濟와 計劃經濟가 共存하는 一種의 分權的 經濟體制가 擡頭하게 되었는데, 2次世界大戰以後 東歐諸國은 蘇聯式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下에서 外延的 成長方式을 推進해 왔는데 그 結果, 大體로 1950年代에는 戰後의 經濟復興과 그들 社會主義工業化를 일단 마무리 짓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後 1960年代에 들어와서 蘇聯과 東歐諸國이 直面한 經濟的 課題는 우선 무엇보다도 勞動, 資本等の 量的 增大에 基礎하는 外延的 成長에 不可避하게 擡頭하는 資源의 浪費를 防止하고, 生産方法과 生産物의 質的 改善, 그리고 資源의 效率的 配分에 基礎를 둔 集約的 成長을 重視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現象은 1970年代에 들어와서 北韓에 있어서도 그들이

設定한 基本的인 政治的 目標에는 變化를 일으키고 있지 않지만, 周邊情勢의 變化와 그들 對內的 與件에 따라 커다란 變化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러한 狀況에 따라 北韓經濟는 일찌기 經驗하지 못한 試練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것은 再言할 必要도 없이 國際的으로는 「닉 - 슌」 大統領이 추진한 東·西兩陣營間에 緊張緩和政策이 主軸하여 軍事的 對立이 漸次 解消되어 가고 있으며, 特히 北韓과 인접한 中共이 毛沢東死亡以後 急進的으로 國際社會의 一員으로 登場하여 가는 事態에 따라서 北韓의 政治集團은 그들의 政治的 目的을 達成케 하는 戰略에 修正을 加하는 것이 顯明하다는 結論에 到達한 것이다.

北韓은 現在 對內的으로 새로운 工業化의 基盤強化라는 그들 政治的 宣傳이 誘發하는 期待에 對한 새로운 充足을 必要로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現象은 現在 急激히 成長, 發展해 가고 있는 韓國經濟와 比較할때 너무나 明白한 事實인 것이다.

다음으로 보다 直接的으로 北韓의 政治, 軍事的 要求에 衝擊的 變化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7·4 共同聲明을 통한 南·北間의 對話에 起因한다고 볼 수 있는데, 韓半島의 統一이라는 새로운 政治的 課題에서 派生되는 南·北對話는 統一以前의 過程에서 南·北間의 交流를 必要로 하고 있으며 이같은 交流自体는 곧바로 閉鎖社會의 部分的 開放을 意味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北韓經濟에 對한 政治目標의 要求는 繼續 政治的인 것에 틀림이 없으나, 過去와는 달리 軍事力보다는 住民消費生活水準의 提

高를 理念的인 成果의 보장보다는 實質的인 問題解決을 強調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만 實際에 있어서 오늘날 北韓은 重工業優先策과 急速한 社會主義工業化를 위하여 採択한 中央集權的 生産管理體制는 産業構造의 심각한 不均衡이라든가 勞動生産性의 低下等 內的인 고민을 안고 있는데, 經濟發展이라는 社會的 變化過程속에서 계속적인 技術革命을 提唱하고 있는것도 바로 이같은 事實에 연유하는 것이다.

특히 '70年代에 들어와서 重勞動과 輕勞動의 差異를 없애고, 工業勞動과 農業勞動間에 差異를 좁히며, 女性들을 家庭으로부터 解放시킨다는 所謂, 「三大技術革命」을 目標로 세우고 努力하고 있으나, 生産力의 增大를 위한 勞動力의 供給이 不足함으로서 長期的으로는 勞動集約的인 産業構造로부터 漸次 資本集約的인 産業構造로의 轉換이 不可避한 것이다.

以上과 같은 背景에서 本研究報告書는 經濟的인 側面에서의 北韓體制의 長期予測을 檢討의 對象으로 하여 그 範圍를 첫째로, 休戰以後 現在까지의 北韓經濟의 發展過程을 簡略하게 檢討하고 同時에 北韓經濟의 現在까지의 發展을 뒷받침한 指導理念 即 重工業優先主義, 軍備強化優先主義, 自給自足の 經濟體制, 個人消費財의 抑制等, 主要施策을 分析의 主要對象으로 하였다.

둘째로는, 北韓經濟의 現況 및 問題點으로서 現在에 있어서의 北韓經濟의 主要指標 例를들어, 國民總生産, 成長率, 歲入, 歲出의 構成, 貿易 및 對外去來等を 概觀하고, 經濟部門別로 農林, 水産業, 鉦工業

等 現況分析에 力點을 두었다. 特히 現在 北韓經濟體制가 지니고 있는 問題點으로서 經濟全般에 걸친 官僚化 및 이에 따른 活力의 상실경향 (金日成, 李種玉 등이 거듭 지적하고 있음), 勞動力의 供給不足, 技術의 低位, 資本의 不足과 外債의 累積, 管理能力의 不足 (3大革命小組 등의 失敗), 社會間接資本의 貧困等 여러 形態의 問題點等을 分析의 對象으로 삼았다.

세째로, 北韓體制의 展望으로서 우선 向後 5年程度까지의 短期展望과 2次7個年計劃以後까지의 長期展望으로 区分하여 檢討해 보았는데, 우선 短期的 側面에서는 北韓이 現在 累積된 外債의 壓力과 이로 인한 閉鎖體制 持續의 不可避한 點과 國內政治적으로 後繼體制問題를 위시하여 지금까지의 金日成體制를 正當化하고자 하는 點等을 分析의 對象으로 하였으며, 長期的인 側面에 있어서는 美-中共, 日-中共間的 國交正常化가 이룩되면 北韓의 對南政策도 어느 정도 緩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結局 이들 諸要因이 複合하여 實用的인 經濟政策이 登場할 것으로 予測된다. 왜냐하면 現在 北韓經濟는 그 어떤 New Deal이 없이는 도저히 發展할 수 없는 限界要因에 直面해 있기 때문이다. 特히 앞으로 中共의 實用路線이 그 成果를 거두고, 北韓內部에 政權承繼가 이루어지고 武力에 의한 南侵統一의 可能性이 멀어지면 질수록 實用路線으로의 轉換이 不可避한 點등을 主要分析의 對象으로 삼았다.

第2章 北韓經濟体制의 時期別 發展過程

社會主義經濟体制의 特徵은 1次로 生産手段의 國, 共有化를 意味하는 것
을 말하고 있지만 特히 北韓의 경우 모든 經濟建設의 基本目標은 그들
特有의 「社會主義工業化」를 達成하는데 있다. 이같은 事實은
即, 社會主義의 原則下에서만이 工業化가 促進될 뿐만아니라, 反對로
工業化가 完成되어야 비로소 住民들의 物質的 生活水準을 向上시키
고 窮極的으로 그들 革命을 完遂하는 物質的 生産基盤을 保有하는
참다운 社會主義가 完成될 수 있다는 論理에 입각한 것이다.

따라서 北韓은 이미 지난 '50年代末 第1次 5個年計劃의 推進時
부터 重工業 優先主義를 提唱하게 되었는데, 그後 모든 經濟計劃의
作成方向은 바로 北韓의 現代的 工業水準의 社會主義的 經濟社會를
完成하는데 있다고 主張하였으며, 事實上 1970年末 6個年計劃을
發表할 當時 金日成은 이미 北韓의 社會主義建設이 이미 完成되었
다고 宣稱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北韓이 8.15解放과 더불어 이제껏 追求해온
一連의 經濟計劃들의 基本課業, 生産內容等を 檢討해 보기로 한다.

가. 6.25 以前

北韓은 8.15解放直後부터 「맑스-레닌」主義의 理論과 蘇聯
의 經驗을 土臺로 하여 社會主義經濟体制를 確立하고 社會主義的

工業國家를 建設함에 注力하였는데, 6.25 動亂前에 이미 北韓은 土地改革을 斷行하고 基幹産業과 交通, 運輸, 通信施設等 重要産業을 國有化하는 한편 經濟活動과 生産能力을 戰前水準으로 回復하기 위하여 短期的 經濟計劃을 몇차례 實施한 바 있다. 北韓은 1949年 그들 政權樹立以後 最初로 「人民經濟2個年計劃」을 發表하였는데, 經濟計劃의 基本方向을 工業部門과 農業部門을 技術적으로 向上시킴으로써 物質的 土台를 一層 堅고히 하여 自立的 民族經濟의 土台를 構築하는 것으로 設定하였고, 이에 따른 몇가지 當面課題를 解決하는데 力點을 두었으나, 翌年 6月 南侵攻擊을 감행하기 위한 大規模 軍事作戰을 試圖함으로써 그 成果를 達成하지 못하였는데, 期間中 主要經濟政策의 特徵은 結局 蘇聯의 軍政이 選拔한 金日成一派의 權力構築에 符合하는 經濟體制로의 轉換을 圖謀하였으며 이는 土地改革, 主要産業施設의 國有化等으로 나타났다.

나. 1950年代

(1) 戰後復旧3個年計劃

6.25 動亂以後 1954-56年間に 實施된 소위 戰後復旧3個年計劃은 蘇聯, 中共을 비롯한 共產圈諸國으로 부터의 積極的인 經濟援助를 前提로 하여 推進되었는데, 同計劃의 基本課題는 工業施設의 合理的 配置를 위하여 工場이나 主要企業所의 所在地를 原料生産地와 直結시켜서 輸送에 便利하고 軍事分界線으로부터 멀리 떨어

진 地域에 配置하는 것이었고, 重工業의 優先的 發展을 위하여 石炭, 電力等の 基礎「에너지」部門과 機械, 金屬, 化學工業等を 重點的으로 復旧함으로서 모든 生産部門을 戰前水準(1949年水準)으로 回復시키는 것을 目標로 하였다.

그러나 3個年計劃은 構想으로서는 現實을 度外視한 意慾的인 것이었는데 처음 1年間に 戰災荒廢를 一掃하고, 다음 1年間に 生活水準을 6.25以前으로 回復하고, 最終 1年間に 重工業部門의 基礎를 構築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北韓은 3個年計劃의 推進方法으로서 北韓全住民들의 勞動力을 總動員하고 모든 國內可用資源을 그들 經濟計劃에 投入하며, 外的으로는 共產圈諸國으로부터 經濟援助를 確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當時의 北韓實情을 감안할때 3個年計劃은 北韓住民들의 基本的 衣·食·住를 解決하는데에 그 政策의 重點을 두었어야 하는 것이지만 實際에 있어서는 軍事的 配慮를 重視하는 方向으로 偏重되었는바, 卽 北韓은 工業部門의 計劃에서 製鉄과 機械工業部門의 內容이 가장 상세하고, 兵器工業部門이 重要的 部門으로 設定되었을 뿐아니라 輸送鐵道の 位置는 休戰線과 後方을 連結하는 南北方向의 路線에 集中되었었다.

이와같이 3個年計劃에 있어서의 軍事經濟原則의 適用은 當時의 金日成이 實際로 平和的 方法에 依한 共產化統一을 믿지않고 있는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韓半島에서 戰爭이 根絶되고 完全한 平和가 온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옳지않다고 하면서 內面的

으로 軍事力 再建의 必要性을 分明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註3)

(2) 1次 5 個年計劃

3 個年計劃에 뒤이어北韓은 重工業의 優先的 發展 및 輕工業과 農業의 同時的 發展이라는 基本路線에 따라 社會主義的 工業化를 推進하는 한편 農業의 集團化와 小規模商工業의 社會化政策을 骨子로 하는 1次 5 個年計劃을 實施하게 되었다.

이 計劃은 1954年 4月에 發表되었으나 住民生活의 엄청난 犧牲과 大衆을 酷使하게 된다고 하여 한때 延安派의 反對에 봉착하였으나, 當時의 副首相 崔昌益과 尹公欽, 朴昌玉 등이 肅清됨으로서 '58年 6月에야 正式으로 採択되었다. 3 個年計劃과 5 個年計劃期間에北韓은 蘇聯, 中共 및 東歐諸國으로 부터 約 10 億弗에 達하는 援助를 얻은 것으로 推定되고 있는데, 이와같은 援助로서北韓의 重工業部門은 지난 1950年代後半에 比較的 높은 成長을 이룩하였음을 볼 수 있다. (表-1)

한편 經濟의 主要部門別 実績을 볼것 같으면, '60年度에 들어와서 電力은 設備容量이 187萬kw에 達하고, 石炭은 1,000 萬屯을 上廻하였으며, 鉄網部門에서는 鉄鉍石 300 萬屯, 銑鉄 85 萬屯, 鋼鉄 64 萬屯을 生産할 수 있게 되었으며 機械工業部門에서는 工作機械, 「트랙터」 및 自動車의 生産台數가 各各 年間 3,000 臺에 達함으로써 重化學工業部門의 比較的 急速한 發展을 이룩하였음을 볼 수 있다. (表-2)

北韓은 이와같이 1次 5 個年計劃期間에 社會主義經濟체제의 完成이

(表-1) 北韓의 經濟計劃期間中 平均工業成長率

經濟計劃期間	年平均工業成長率(%)
6.25 以前 (1947 ~ 49)	49.9
3 個年計劃 (1954 ~ 56)	41.7
1 次 5 個年計劃 (1957 ~ 60)	38.4
7 個年計劃 (1961 ~ 70)	12.8
6 個年計劃 (1971 ~ 76)	目標 17.0 実績 14.0

資料：国土統一院，北韓經濟統計集，1976 年刊

(表-2) 1 次 5 個年計劃의 成果 (1960)

期間中 对外援助	約 10 億弗
電力 發電設備	187 萬kw
電力 發電量	91 億 kwh
石 炭	1,000 萬屯
銑 鐵	85 萬屯
鋼 鐵	64 萬屯
鋼 材	47 萬屯
鉄 鉍 石	300 萬屯
化学肥料	56 萬屯
세 멘 트	223 萬屯
工作機械	年間 3,000 台
自 動 車	" 3,000 台

라는 名分下에서 커다란 社会的 變化를 야기시켰는데 우선 첫째로, 千里馬運動의 展開를 들 수 있다. 即, 北韓 全住民의 勞動力을 党이 願하는 事業에 投入하기 위해 이들 저해하는 모든 社会的 慣習을 打破하고 最大의 勞力動員을 期하기 위하여 이른바 社会主義競争運動을 展開하는 것을 着想, 實施하였고, 그 成果는 '50年代後半 北韓經濟 建設의 原動力이 되었으며 둘째로는, 農村社会集團化体制의 完成을 들 수 있다. 北韓에서는 社会主義建設要件에 하나가 되는 協同化의 口號 밑에서 農業生産規模의 擴大着手 및 小單位 協同組合 構成의 急激한 大單位 協同組合화와 同時에 大規模 行政單位의 改編까지 斷行하고 말았다.

끝으로, 個人商工業의 抹殺과 党優位の 生産管理方式을 採択하였다. 即, 軍需經濟原理下에서 工業部門建設에 必要한 勞動力을 差出하는 또 하나의 部門은 社会主義建設에 아무런 意義가 없는 個人商工業이다. 獨裁權力基盤을 達成한 金日成은 党이 必要로 하는 經濟事業에 모든 中·小商工業을 投入시켰을 뿐아니라 北韓勞動党은 北韓經濟自體를 党이 企圖하는 方向으로 建設되고 必要로 하는 生産內容을 保障하는 方案으로 党中央委員들의 現地指導事業을 展開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党中央委員들을 道別로 分担시켜 經濟建設事業을 現地에서 督勵하고 감시하도록 措置를 取하게 되었다.

다. 1960年代(7個年計劃期間)

1961년부터 着手한 7個年經濟計劃은 5個年計劃의 成果를

土臺로 하여 社會主義的 工業化를 實施하고 社會主義의 物質的, 技術的 土臺를 強力히 構築함으로서 社會主義建設을 完成시키고 共產主義로에 漸次的 移行을 準備하는데 그 目標을 두었다. 그리고 이같은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서 北韓은 ①重工業의 優先的 發展 ②輕工業과 農業의 同時的 發展 및 ③全面的인 技術革新과 文化革命에 依하여 人民生活을 劃期的으로 向上시키는 것을 基本課題로 하였다.

또한 北韓은 이같은 課業을 圓滑하게 解決하기 위하여 前半期 3年計劃과 後半期 4年計劃으로 区分하였는데 具體적으로 前半期計劃의 目標은 既存 重工業基地를 整備하여 이를 보다 效果的으로 利用하고, 輕工業과 農業을 急速히 發展시킴으로서 人民生活을 劃期的으로 改善시키는데 重點을 두었고, 後半期에는 重工業基地를 한層 더 擴張하고 技術裝備를 改善하고 社會主義의 物質的 技術的 土臺를 強化하는데 重點을 두었다.

한편 計劃期間中 工業部門의 年平均 成長率은 18%를 目標로 하고 工業部門의 總生産高는 3.2倍, 穀物은 1.7倍 增産할 것을 目標로 하였다. 이와같이 7個年經濟計劃은 그 特徵이 長期計劃이라는 點과 前半期에 國民生活에 向上을 두었다는 點, 그리고 計劃期間이 經過한 後에 計劃未達을 自認하고 3年 延長을 하여 實際로 10個年計劃으로 轉換한 點等이라 할 수 있으며, 計劃期間에 千里馬運動을 위시하여 6個高地占領運動, 10大課業達成運動, 靑山里精神 등의 各種 增産運動을 展開하게 되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資本과 技術이 不足한 北韓이 이같이 意慾的인 計劃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外國의 資本과 先進技術을 必要로 하였는데, '60年代 前半에는 蘇聯의 援助가 中斷되었고 後半에는 中共의 援助가 中斷되는 事態에 이르렀다.

따라서 7個年計劃은 投資財源과 技術의 不足, 勞動力의 不足과 生産意慾의 減退, 計劃管理의 未熟과 經濟各部門의 不均衡 및 軍事力強化에 따르는 資源의 浪費等으로 因하여 3年을 延長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当初의 計劃을 達成하지 못하게 되었다. 即, 北韓이 '70年度 第5次 黨大會에서 밝힌 7個年計劃의 總和報告에 依하면 工業部門의 總生産額은 計劃期間中 年平均 12.8%씩 成長하여 '60年比 3.3倍로 增加하고, 그中 生産財는 3.7倍, 消費財는 2.8倍로 增加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工業部門의 成長率은 計劃目標을 5.2%나 下廻한 셈이다.

主要部門別 生産実績을 보면 (表-3) 石炭과 電力을 除外하고는 거의 計劃目標을 達成하지 못하였는데, 北韓이 繼續해서 注力해 온 鐵鉍石, 銑鉄, 鋼鉄, 圧延銅材 등의 鐵鋼生産과 세멘트, 化學肥料 등의 重化學工業에 있어서는 計劃目標에 약간 未達하였으나 化學, 纖維, 織物, 水産物等 人民生活向上과 直結되는 物資의 生産은 極히 不振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黨大會의 報告에 依하면 機械工業部門에서는 6,000 噸級 「푸레스」, 重量自動車, 大型 「트랙타」, 電氣機關車, 「디젤」 機關車, 5,000 噸級 大型船舶等 大型機械과 各種 精密機械 등을 製作하였다

(表-3) 7 個年計劃의 目標과 実績

	單位	計劃 (A)	実績 (B)	B/A
工業成長	倍	3.2	3.3	103 %
	年平均	18 %	12.8 %	
發電量	億 kwh	160-170	165	97-103 %
設備容量	萬kw	338	280	83 %
石炭	萬 屯	2,500	2,750	110 %
鉄鉍石	"	720	600	83 %
銑鉄	"	230	220	95 %
鋼鉄	"	230	200	85 %
鋼材	"	170	104	61 %
化学肥料	"	170	150	80 %
세멘트	"	430	400	73 %
化学纖維	"	9.4	3.25	35 %
織物	億 m	5	4	80 %
알곡	萬 屯	660	500	76 %
벼	"	300	210	70 %
水産物	"	120	80	80 %

資料：国土統一院刊，北韓經濟統計集，1976

고 하며 個個의 機械設備와 綜合的 工場設備를 製作하여 發電所, 冶金工場, 化学工場 및 消費財工場等 100餘個所에 供給하였다고 하나, 具體的으로 各品目別 生産実績은 전혀 發表하지 않은 點으로 보아 當初의 計劃目標를 達成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極히 不振하였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化学工業部門에서는 化学肥料의 生産実績이 150萬屯으로 目標보다 20萬屯, 化学纖維 生産実績은 3.2萬屯으로 6.2萬屯이, 「세멘트」生産은 400萬屯으로서 50萬屯이 各各 未達하고 여타의 化学製品生産実績은 發表하지 않은 點으로 보아서 同部門의 生産도 不振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日用品生産에 關해서는 生産実績을 發表한 品目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同部門이 極히 低調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北韓은 이미 前述한 바 있거니와 5個年計劃이 完成되면 모든 社会主義工業化의 基礎建設이 끝나게 됨으로서 곧이어서 北韓經濟는 完全히 「跳躍段階」(Take-off)로 들어서는 것으로 予想하였다. 따라서 北韓은 '60年代에 들어서면서 社会主義經濟建設의 完成이 当代에 到來할 수 있다는 可能性을 提示하는 同時에 이를 實踐에 옮겨보고자 하는 經濟計劃을 發表할 段階임을 認識하고 '60年代에 長期計劃을 推進하였으나 이와같은 構想은 一時的 展望에 不過하였고, 7個年計劃의 2次年度인 '62年度에 이르러 金日成은 當時 「越南」事態의 進前과 關聯하여 國際情勢의 變化가 그들 經濟計劃의 全面 轉換을 不可避하게 하는 것이라고 宣言하고

이른바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의 併進」이라는 政治的, 軍事的 口
号下에 7個年經濟計劃의 性格을 完全히 軍事經濟建設의 方向으로
轉換시키고 말았다. 그리하여 北韓은 7年에 3年을 緩衝期로 追
加한 1.0年間に 걸친 期間을 軍事經濟原則에 입각한 全面投資로
그 特徵을 規定할 수 있는 經濟建設을 断行한 것이다.

그럼으로 7個年經濟計劃도 表面上으로는 그들 社会主義工業化의
完成, 自立經濟建設, 그리고 다소 現實을 감안한 國防, 經濟建設의
併進等으로 基本特徵이 提示되고 있지만 實際에 있어서는 4大軍事
路線을 物質的으로 解決하는 生産基盤構築이라는 特性을 지니는 것
이 되고 말았다.

라. 1970年代(6個年經濟計劃期間)

1970年代에 들어와서 '71년부터 始作된 6個年經濟計劃은
社会主義工業化를 推進하되 ①工業部門의 基盤을 한層더 공고히 하
고 ②技術革新의 次元을 提高하여 社会主義의 物質的, 技術的 基礎
를 공고히 하며 經濟의 모든 部面에 있어서 勤勞者들을 힘든 勞
動으로부터 解放시키는 것을 基本課題로 하였다.

工業部門에서는 보다 더 質的인 成長 및 各部門間 均衡에 置
重하고 '60年代에 隘路部門으로 나타난 電力 및 鉍業部門의 開發
에 置重하고 原料의 國產化를 強力히 推進하여 그 自給率을 60~
70%로 높이기로 計劃하였다. 또한 農業部門에서는 土地改良과 集

約的인 耕作, 農業의 機械化와 肥料의 增産, 水利施設과 灌溉의 開發等을 通하여 農業部門의 生産增産을 計劃하였다.

한편 同計劃은 技術革命에 依하여 ①重勞動과 輕勞動의 隔差를 解消하고 ②工業勞動과 農業活動의 격차를 解消하고 ③家事로부터 女性勞動을 解放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다. 6個年經濟計劃은 計劃期間中에 工業生産을 年平均 14%씩 成長시켜 目標年度인 '76年度에는 2.2倍로 擴大시킬것을 計劃하였는데 그 部門別 主要目標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4)

即, 6個年計劃의 特徵은 7個年計劃의 事業을 移管한 것이 많다는 點과 7個年計劃에 比하여 目標成長率을 약간 낮추어 國民所得의 年平均 成長率은 10.3%, 工業部門의 年平均 成長率은 14.0%로 下向調整하여 目標數字에 相當한 幅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具體的인 內容을 보면 첫째, 7個年計劃에서 目標로 되어 있었던 「알미늄」工場, 石油化學工場, 合成 고무工場 建設의 課題가 如前히 6個年計劃에도 들어있는 點, 둘째로, 機械類에 關해서 總體的인 目標數字는 「트랙터」와 工作機械以外에는 들고있지 않으나 大型機械의 生産을 課題로 한 點, 셋째로 輕工業部門에 關해서는 物以外에는 具體的인 目標을 設定하지 않은 點과 끝으로 農業部門에 關해서는 耕地擴張等 自然改造事業을 들고 나오지 않고 간척지 개간, 5町步에 限定하고 오히려 集約化를 強化하는 方向으로 轉換한 點等이다.

結局 全體的으로 보아서 東歐諸國의 經濟計劃과 政策에 있어서와 같이 單純한 量的인 膨脹政策으로 부터 技術革新을 中心으로 하는 質的인 向上政策을 強調한것이 特徵이라 할 수 있다.

(表-4)

6 個年 經濟計劃 目標

国民所得	1.8 倍
發電量	280 ~ 300 億 kwh
設備能力	500 萬kw
石炭	5,000 ~ 5,300 萬屯
銑鉄	350 ~ 380 "
鋼鉄	380 ~ 400 "
鋼材	280 ~ 300 "
트랙터	2 萬 1,000 台
工作機械	2 萬 7,000 台
化学肥料	280 ~ 300 萬屯
세멘트	750 ~ 800 "
織物	5 ~ 6 億 m
製紙	中央製紙工業能力 15 萬屯斗 1.8 倍
加工食品	2.6 倍
工中肉類	5.9 倍
水産物	160 ~ 180 萬屯
穀物	700 ~ 750 "
工中 鹽	350 萬屯
銑鉄貨物輸送量	1.7 倍
船舶貨物 "	1.7 倍
自動車貨物 "	1.8 倍

이같은 상상은 '70年代에 들어와서 北韓經濟는 變化를 위한 하나의 새로운 轉機를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른바 軍需産業과 國防建設이라고 하는 畸型的 經濟建設로 一貫하여 온것이지만, 數十年에 걸친 建設의 蓄積은 일단의 軍事的 目的을 達成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北韓經濟의 方向은 새로운 目標로 돌릴 수 있는 契機가 造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戰爭準備의 完了를 宣言하고 또 하나의 새로운 段階의 經濟建設計劃을 發表하기 위하여 北韓勞動黨은 1970年 11月, 第5次 黨大會를 召集한 것이다.

當時의 金日成은 黨大會에서의 演說을 통해 北韓에서는 7個年計劃의 成就로 社會主義工業建設이 完成되어 人民經濟의 빛나는 앞날이 約束되었다고 하였는데 보다 具體적으로 社會主義工業化의 完成이라는 것은 自立經濟의 確立, 重工業建設의 構築, 社會主義革命을 위한 物質的 基盤의 造成, 그리고 人民生活에 必要한 工業製品을 自体充足시키는 能力을 保有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6個年計劃期間中 가장 큰 異變은 外國資本의 實質的 導入을 들 수 있다. 이제껏 北韓은 主体思想, 自立經濟, 그리고 自力更生의 理論體系에 變動이 없을 뿐더러 閉鎖體制를 繼續 유지함으로써 6個年計劃初期에 있어서도 外國資本에 대한 言及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北韓은 現在 約 22億弗에 達하는 外國債務가 發生하고 있는 實情이며 그 大部分이 6個年計劃期間中 短期貿易信用의 償還不能으로 야기된 것이다. 따라서 北韓은 底意에 있어서는 外國資

본의 依存을 願치 않았으나 貿易計劃의 執行의 蹉跌로 因하여 外國資本의 依存이란 結果를 招來하고 만 것이다.

더욱이 北韓이 내세우고 있는 自力更生의 原則에 違背되는 또 하나의 主要한 事實은 增産과 品質의 向上을 解決하는 方案으로 自由障營의 先進國의 施設材와 이에 隨伴된 生産技術을 大量 導入한 點이다.

具體적으로 1971年부터 '73年까지 日本으로부터 導入한 設備總件數는 約 50件에 達하고 있으며, 製鐵分野는 蘇聯으로 부터 施設과 技術을 導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플랜트」規模의 施設을 先進 自由主義諸國으로부터 대거 導入한다는 事實은 그동안 工業化를 完成하였다고 하는 科學技術이 결코 後進性을 免치 못하고 있음을 是認하고 이를 短時日內에 脫皮하여 보려고 하는 政策手段으로도 利用하려는 意圖를 말하는 것이다.

한편 6個年計劃의 政策課題中 工業施設의 自動化, 機械化以外에도 北韓은 심각한 勞動力의 不足을 緩和하기 위한 方案을 動員하는데 全力을 傾注하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이제껏 지난 7個年計劃期間까지 建設하여 높은 北韓의 生産方式은 勞動集約的인 것이 特徵이었다. 따라서 北韓은 첫째로, 婦女子의 家事로 부터의 解放, 둘째로 農場作業의 機械化, 셋째로, 새로운 勞力競爭運動의 強化 등의 諸方案

을 動員하기에 이르렀는데, '70年代 前半의 6個年計劃의 特徵은 大体로 다음과 같이 集約될 수 있다.

첫째로 北韓은 社會主義工業化의 內實을 期하기 위하여 3大技術革命의 口號下에 보다 先進段階의 經濟事業을 展開하는 것으로 主張하였지만 實際로는 軍需産業爲主의 工業構造를 그대로 유지하는 前提下에서 既存施設을 外國의 資本과 技術을 導入, 代替 擴張하는 建設工事を 實施하는 것을 主要骨子로 하였는데 이러한 經濟建設의 變化는 결코 政策의 轉換이라기 보다는 過去의 軍事經濟爲主의 政策을 補完強化하는 것으로 解釈하여야 하며, 이같은 事實은 6個年計劃에서도 重工業分野의 基本建設이 優先되었다는 點과 反對로 輕工業部門은 이 期間에도 本格的으로 着手되지 못하였다는 事實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둘째로, 6個年計劃期間中 貿易規模가 擴大되었다고 하여 北韓經濟가 閉鎖體制를 脫皮하고 開放體制로 轉換했다고는 볼 수가 없으며 外國資本과 技術의 依存은 어디까지나 一時的 現象으로 評價되어야 하며, 勞動力의 不足現象이 繼續적으로 심각하여 이를 解消하려는 措置로 北韓住民들의 生活은 더욱

集團化 내지 組織化되고 있는데 結局 北韓經濟는 '70年代 初半에도 長期的 眼目下에서 均衡成長을 위한 開放戰略下에서 政策課題가 選擇되지 못하고, 短期的 軍事力 強化를 增大시키려는 觀點에서 實施되었다고 볼 수 있다.

第 3 章 北韓의 主要經濟政策의 基調

經濟體制와 經濟改革사이의 矛盾을 是定하려는 努力은 現在 東·西兩陣營을 莫論하고 繼續되고 있다. 共產圈陣營에 있어서도 蘇聯 共產黨中央委員會는 지난 1969年10月, 처음으로 「利潤指向型」經濟로 移行하는 措置를 取하였는데, 蘇聯은 「시스키노」化學工場의 經驗을 土臺로 하여, 종래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를 크게 後退시키고 生産單位에 自由經濟體制를 擴大시키도록 하는 한편, 「시스키노」化學工場은 中央計劃當局의 統制를 벗어난 示範工場으로서, 同年에 勞動生産性 87%, 全體生産量 約70%를 增加시켰다고 發表한 바 있다.

따라서 蘇聯의 「크렘린」當局은 이같은 成果를 基礎로 하여 漸次로 分權的 自由經濟體制를 擴大시켜 그들 經濟의 停滯性을 脫皮시키려는 意圖가 當時의 指置로서 分明해진 것이다. 蘇聯經濟에 있어서 企業의 利潤概念을 提起한 것은 1962年9월에 이른바 「리베르만」(Ivsey Liberman) 論文을 契機로 하여 한때 計劃論爭이 크게 벌어졌으나^{註(4)} 經濟實體의 變動에 對한 共產體制的 矛盾을 認定키 않을 수 없는 客觀的 事實때문에 蘇聯은 마침내 이같은 利潤制度의 導入을 試驗하게 된 것이다.^{註(5)}

따라서 이와 같은 生産單位의 利潤制度의 導入은 個人의 自發的 參與의 競爭的 調和를 無視하는 計劃과 統制가 人間의 創意를 無視한 것이기 때문에 經濟發展을 停滯시킨다는 基本的 事實을 自覺한

것으로 結局, 「이데오로기」의 세속으로 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징후라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中央集權的 共產主義體制를 固守하고 있는 共產圈諸國 가운데에서도 가장 완고한 北韓은 그들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達成하기 위하여 生産關係의 社會主義的 改造를 하였을 뿐 아니라 社會主義의 物質的 技術的 土臺를 強化한다는 命題下에서 出發하여 「社會主義的 工業化와 人民經濟의 技術的 再建」을 그들 經濟政策의 基本目標로 設定하고, 自立的 工業基盤을 確立함으로써 社會主義建設을 推進시키며, 궁극적으로 北韓의 革命基地를 強化하여 韓半島의 赤化統一을 目標로서 追求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前章에서 檢討한 바 있거니와 北韓은 이제껏 解放以後, 1950年度까지 主로 土地改革에 主眼點을 둔 體制改革의 準備作業을 進行하였고, 1954年度부터 '60年度까지는 戰災復旧와 自立經濟의 基盤을 確立하려는 社會主義經濟의 基礎的 建設期로 삼았으며, 北韓의 經濟發展의 主要한 轉換點을 이룬 1961년부터 1970年度까지의 7個年經濟計劃期間에는 重工業優先策과 併行하여 初期에는 輕工業分野에도 어느정도 關心을 集中시켜서 勞動生産性을 增大시키려는 努力을 傾注하였으나, '60年代 中半期부터 軍事力強化에 依한 國防費의 大幅的인 增大로 말미암아 本來의 目標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重工業優先策으로 因한 急速한 經濟成長을 위해 採択된 高度의 中央集權的 管理體制는 그것이 經濟發展目標에 지나치게

執着하는 데에서 연유되는 效果爲主의 生産活動과 産業構造의 低下等 深刻한 苦惱를 안고 있는 것이며, 結果적으로 '70年代에 들어서 全體的인 經濟成長의 鈍化現象으로서 集約되고 있는데, 現在 北韓이 固守하고 있는 主要經濟政策의 內容은 크게 다음 4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첫째, 生産의 量的인 目標에 지나치게 執着함으로써 創意와 能率 (Efficiency)의 問題를 度外視하는 性向을 深化시켰으며 이같은 現象은 生産品의 質的인 低下와 製品의 單純化 現象을 招來하게 되었고, 官僚主義的 生産管理体系의 矛盾點이 深刻하게 逆機能을 투영함으로써 人間關係的 接近法에 依한 改善의 努力이 繼續되고 있는데 強制성과 規範性보다 漸次, 物質的 誘因提供에 神經을 쓰고 있는 傾向을 볼수 있는 것이 特徵이다.

둘째, 이제껏 北韓은 閉鎖 「自給自足型」 (Autarky) 經濟建設을 推進하면서 많은 副作用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石油化學工業이 落後한 現象도 하나의 例임을 볼수 있다. 故로 北韓은 6個年經濟計劃이 立案되면서 부터 이에 必要한 資本과 設備 投資를 調達하기 위해서 積極的인 貿易의 擴大政策을 推進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北韓의 새로운 國際秩序에의 適應現象은 自身을 開放體制로 變質시킬 可能性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外國技術의 內容과 模倣에 급급했던 經濟體制가 6個年計劃 期間에 들어오면서 技術革新의 艱박함을 느끼고 産業의 系列化까지도 考慮하고 있는데 技術革新을 위한 體制의 開放은 長期的으로

볼때 거의 不可避한 現象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세째, 北韓이 追求하고 있는 重工業優先政策은 自由主義 經濟体制와는 달리 敍業開發, 基礎施設材工業, 中間原資材工業, 最終消費材工業으로 逆行을 하고 있는 現象을 볼수 있다. 따라서 生産財工業部門과 消費材工業部門間的 深化現象을 빚고 있을 뿐아니라 近代的 工業化의 基本要件인 質的인 高度化나 生産構造의 多樣化라든가 聯關產業의 同時的 發展이 어렵다고 볼수 있는데, 北韓은 現在 이같은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 地方行政機關中心의 地方工業의 設立을 強化하고 있고 分權的 管理体系로의 轉換을 企圖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그럼으로 日用品省의 創設도 이와 같은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要求로서 비롯 되었으며, 現在 推進하고 있는 2個年經濟計劃으로 重工業基地를 基盤으로 輕工業基地와 產業의 系列化를 推進하고 있으며, 特히 工業化에 따르는 技術的 不足을 메우기 위한 技術者 및 經營 專門家들의 教育이 強調되고 있는 現象을 볼수 있다. 註(6)

네째로, 國防經濟의 併進策으로 因한 國防費의 膨張現象을 볼수 있는데, 지난 1966年까지는 北韓이 國防費를 民族保衛費라고 稱하였으나, '67年부터는 國防費로 稱하고 있는데 1966年度の 國防費의 比重은 全体 歲出予算의 10%에 不過하였으나, '67年부터는 30%로 膨張된 現象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은 지난 '60年代中半期 美·蘇의 關係가 好轉됨으로서 自主的 防衛体制를 한층 強化하여 軍事費膨張에 攄중하였기 때문인데 北韓이 그들의 制限된 資源으로서 社會主義工業化를 推進하고 있는 狀態에서 國防費의 膨張은 投資財源

確保에 차질을 招來하고 있음은 勿論, 오늘날 東歐羅巴共產國家를 볼때, 國防費에 對한 支出이 GNP에 對하여 차지하는 比重은 「헝가리」의 경우 3%, 「체코」 7%, 蘇聯의 경우 13%에 達하고 있는데, 北韓은 그들 總予算에서 國防費가 約30%를 차지함으로서 '70年代의 經濟沈滯를 打開하기 위하여서는 이같은 高度의 軍事費負擔의 削減이 不可避한 事實로 나타나 있다. 故로 全體的으로 볼때 北韓經濟의 主要施策中 當面한 問題點은 生産의 量的 目標을 追求하고 있는 中央集權的 經濟計劃과 官僚主義的 生産管理體制를 들수 있고, 自給自足型의 經濟體制와 重工業優先策, 軍事費負擔의 增加現象等으로 集約될 수 있는데 本章에서는 前述한 主要時期別 北韓의 經濟計劃과 發展過程에 있어서, 現在 北韓이 固守하고 있는 主要經濟施策에 對해서 檢討해 보기로 한다.

가. 中央集權的 經濟計劃과 生産管理體系

北韓에서 生産單位에 對한 管理體系를 把握하려면 北韓이 그들 社會主義 生産管理體系의 理論과 實際에 變革을 가져왔다고 主張하고 있는 所謂 「大安의 事業體系」를 中心으로 봐야 할 것이다. 既存 經濟管理體系, 特히 生産單位水準의 管理體系에 欠陥이 있다는 事實이 北韓의 政策決定者들에게 明白해진 것은 지난 1950年代末이다. 이같은 事態에 對하여 北韓은 黨의 組織을 通하여 工場 및 地方水準의 政治的 統制를 한층 強化하는 一方, 中央集權

的 管理体系의 完化로서 対処하려고 하였는데, 工場 및 生産單位에 黨指導者가 補強되었으나, 나아가서 地方水準의 計劃業務를 向上시키기 위한 目的으로서 道計劃機構가 創設되어 道内の 모든 計劃業務에 對하여 統制를 할수 있도록 措置하였다. 따라서 大安事業體系는 企業의 支配人을 代身한 工場水準에 있어서의 集團指導의 概念에 重點을 두고 있는데 即, 工場黨委員會가 工場의 支配人, 技士長, 黨委員會로 構成되는 集團指導制에 있어서 主導權을 갖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 大安體系에 들어와서 몇가지 措置가 取해진 것이 事實인데, 예를 들면 計劃入案過程에서 勞動者의 直接參與는 가장 特徵的인 措置로서 나타나고 있으며, 勞動者들의 生産計劃樹立過程에의 直接參與를 通하여 北韓은 工業水準에 있어서 從來의 非現實적이었던 生産計劃을 勞動者의 素質과 技術로부터 機械의 能力과 特性에 이르는 工場内の 모든 關係要因을 考慮한 基礎위에서 樹立된 보다 正確하고 現實的인 計劃으로 代替하려고 試圖한 것이다.

따라서 勞動者들이 生産計劃에 直接 參與한 結果, 勞動者들이 生産目標達成을 위해 보다 努力하고 있다고 北韓은 主張하고 있으나, 計劃入案에 이같은 勞動者들의 直接參與를 通하여 보다 集中的으로 勞動力을 搾取하기 위한 方案으로 勞動者들 스스로의 生産基準量의 設定을 許容하였다.

即, 各作業班內에는 여러가지 生産의 基準量을 決定하는 所謂 「自體基準量 決定委員會」가 組織되었으며 이에 따라 大安의 새로운 事業體系下에서 大安電氣工場에서만도 約2,600件以上の 作業標準이

変更되었다고 한다. 이같은 作業標準의 修正이 주로 上向 調整된 것인지 또는 下向調整된 것인지는 밝혀진 바 없으나 如何든 修正件數가 많았다는 그事實 自体만으로도 大安體系實施以前の 計劃體系가 얼마나 非現實的인 計劃이었던 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北韓은 거의 15年前에 生産管理分野에 있어서 大安體系가 導入된 以來, 現在까지 다른 아무런 改革이 이루어진 바 없는데, 이와 같은 事實은 北韓이 大安體系에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으며, 北韓이 官僚主義와 形式主義의 除去를 위한 思想教育을 強調하고 管理問題에의 合理的 接近에 力點을 둔다면 工場水準에서의 어느정도 改善된 管理體系가 發展될 可能性이 없지 않는데, 그러나 管理의 效率性은 管理情報體系, 費用效果分析等 오늘날 西方世界에서 一般的으로 通用되고 있는 各種 管理技術의 導入과 發展等 다른 要因들에 依해서 크게 左右되기 때문에 工場水準에서의 이러한 專門管理技術의 欠如가 장차 커다란 隘路要因으로 登場할 것이 予測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重要的 問題는 大安體系가 生産管理에 있어서 從前에 比하여 약간 分權的인 措置를 取하기는 하였지만 共產主義管理體系自体가 原來 個人的 創意를 犧牲하고 中央計劃을 통한 順序와 組織化, 그리고 規律을 보다 重要視하고 있는 限, 合理的 管理體系의 改善은 未決의 問題로 남아있는 것이다.

北韓은 그들 社會主義計劃經濟를 推進하는 過程에서 모든 資源과 生産手段을 「國家計劃委員會」가 掌握하고 있기 때문에 北韓의 經

濟는 「統制計劃」(Controlling Plan)에 의하여 運營되고 있으며 이같은 經濟計劃은 「指示的 計劃」(Indicative Plan)에 反對되는 概念으로서 經濟計劃의 目標가 設定되면 이같은 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政策手段을 動員하여 間接적으로 誘導하는 것이 아니라 直接的으로 計劃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統制手段을 구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註(7)

또한 計劃目標도 「價值」(Value)로서 表示되는 것이 아니고 註(8) 「物量」으로 表示되는 것이 普通인데, 政務院 國家計劃委員會의 主要機能은 첫째로, 經濟計劃 및 長期經濟計劃의 作成과 둘째로, 政務院의 各부와 委員會는 地方計劃機關에 依해서 作成된 經濟計劃案을 調整하고 있다.

한편 黨은 政策의 參謀部로서 地位를 占하고 各部門과 企業所에 侵透하여 計劃進前狀況과 品質, 品種等を 監督한다.

따라서 北韓經濟의 計劃管理体系의 몇가지 特徵을 要約하여 보면 첫째, 生産單位는 企業體의 支配人責任下에 獨立採算制를 實施하고 있으며

둘째, 모든 生産指標는 中央의 劃一的 管理下에 指揮統制되며, 모든 商品과 用役은 中央에서 策定하는 價格에 依하여 公定制로 評價되고 있다.

北韓은 이제껏 이같은 生産管理体系를 여러번 改編함으로써 生産의 効率化를 期하려고 하였으나 經濟發展과 併行하여 生産의 構造가 深化할수록 官僚主義的 管理体系의 欠陷은 擴大되고 있는 現象

을 볼수 있는데, 蘇聯과 東歐에서와 같은 制度의 内部的 改革이 아닌 金日成 唯一思想을 基盤으로 한 勞動者와 管理層의 政治思想 武裝을 強化함으로써 生産活動을 提高시키려고 努力하고 있다.

結局, 中央集權的인 生産計劃과 統制體制는 그 本質上 肥大한 官僚機構를 生成시키게 마련이며 各部署와 委員會를 連結하는 復雜한 通路를 通하여 官僚陣은 個別生産單位에 對한 生産目標의 割當으로부터 經濟全分野에 걸친 資源配分에 이르기까지 無數한 決定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그結果, 北韓의 경우 計劃立案者들이 各部署의 業務의 調整이라든가 또는 部署에 따른 다른 政策決定問題에 시달리다 보면 計劃의 蹉跌이나 相互矛盾되는 政策決定의 混亂이 야기되는 것은 必然的인 現象인 것이다.

이와 같은 現象은 蘇聯에 있어서도 지난 1956年부터 始作된 價格에 對한 批判的 論議와 生産과 資源配分을 指導함에 있어 中央의 指令보다 市場性과 財貨의 循環에 보다 큰 役割을 賦與하는 方向으로 서서히 移行함에 따라 蘇聯의 經濟學者 및 政策樹立家들은 漸次 價格機能에 注意를 기울이게 되었다. 따라서 지난 1956年부터 始作된 價格에 對한 批判的 論議는 蘇聯經濟에 있어서 價格制度에 많은 欠陷들을 暴露하였으며, 多樣한 改革案이 統出하였는데 小規模의 技術的 修正案으로부터 基本的 性格의 抜本的 改革案까지를 內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註(9)

그러나 蘇聯共產黨과 官僚陣들이 이같은 價格問題에 큰 關心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事實이지만, 中央計劃當局은 財貨의 不足을 反映

하여 可用資源을 效果的으로 配分할 수 있는 價格体系의 大幅的인 改革에 있어서는 매우 주저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 理由는 黨이나 經濟計劃立案者 및 官僚들이 이같은 改革에 抵抗하고 있기 때문인데, 蘇聯의 政治指導者와 計劃立案者들은 全体經濟에 對한 管理權을 消費大衆에 移讓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重工業 優先策의 持續

北韓은 8.15 解放以後 現在에 이르기까지 모든 經濟分野를 社會主義形態로 單一化하고,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下에서 重工業의 優先的 發展을 通하여 經濟發展을 促進하려는 基本施策을 強行하면서 「社會主義工業化」를 追求하여 왔다.

그 實例로서, 北韓은 7 個年經濟計劃期間인 1961~1969 年間に 基本建設投資額 87 億원 (北韓원) 가운데, 約 57%인 50 億원을 工業部門에 投資하였는데 그中 80%인 40 億원을 重工業部門에 配定하였다. (表-5)

(表-5) 7 個年計劃의 投資實績 (1961~'69)

區 分	構 成 比		金 額 (北韓원)
	對 總 計	對 小 計	
工 業 部 門	57 %	100 %	50 億원
重 工 業	46 %	80 %	40 "
輕 工 業	11 %	20 %	10 "

區 分	構 成		金 額 (北 韓 圓)
	對 總 計	對 小 計	
農 業	20 %		17 億 圓
其 他	23 %		20 "
總 計	100 %		87 "

資料： 北韓經濟總計集， 國土統一院刊， 1976 .

이와 같은 重工業偏重은 北韓의 6個年計劃에서도 是正은 되었으나 基本建設投資의 配分面을 볼것 같으면 總投資額의 49%가 工業部門에 配定되고 있으며, 其中 83%가 重工業部門에 配分되고 있는 事實만 보아도 北韓의 經濟政策은 繼續 重工業部門에 偏重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같은 重工業優先策은 所謂 「스탈린」主義의 遺産이라고 볼수 있는데, 「스탈린」은 모든 社會主義國家는 綜合的인 産業體系를 갖추어야 한다는 命題下에서 지난 1920年代末부터¹⁰⁾, 繼續 重工業優先策으로 一貫하였는데, 當時의 蘇蘇은 歐州열강의 包圍속에서 社會主義建設이라는 危機意識으로 부터 重工業優先策을 不可避한 事實로 보았고 그結果, 民衆의 消費生活犧牲이 極度에 達하였으며 이같은 結果 마침내 資金原泉이 고갈되어 經濟危機를 自招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北韓의 時代的 背景이 當時의 蘇聯과는 여러 가지 与件이 다른데도 不拘하고 重工業優先策을 指向한 것은, 初期의 獨自的 經濟政策이 不在한 가운데서 蘇聯의 政策을 그대로 模倣하였

다고 볼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이같은 重工業優先策이 北韓의 特殊한 条件下에서 金日成의 權力과 密着되고 또한 그것이 侵略政策의 要求로서 強行되었기 때문에 주로 軍需産業을 위주모한 重工業優先策임을 볼수 있다.

一般的으로 工業化의 方向이라함은 모든 産業의 技術的 變化, 發展과 함께 産業構造가 質적으로 어떻게 變化하며 生産構造 또는 生産樣式이 어떻게 變化해가는 가를 意味한다. 또한 不足한 資本으로 全産業을 發展시켜야 하는데 있어서는 不均衡成長論者들이 主張하는 바와 같이 資本의 效率性を 가장 높게하기 위하여 「聯關效果」(Linkeage Effect)가 가장 큰 産業을 重點적으로 開發함이 必要하며, 다음으로 開放體制를 考慮하여 國際分業上 優位에 있는 産業을 開發해야 한다.

오늘날 韓國을 包含하여 大部分의 先進國을 볼것 같으면, 重工業은 一次産業部門의 뒷받침을 비롯한 技術的 基盤이 마련된 가운데서 發展하였는데, 北韓에서는 이같은 基盤이 갖추어지지 않은채 重工業에 偏重하였기 때문에 輕工業部門의 犧牲은 勿論, 産業間 不均衡이 深化되어 經濟發展마저 鈍化시키는 惡循環을 招來하고 말았다.

따라서 北韓의 工業部門 總生産의 年平均 成長率을 年代別로 比較하여 볼것 같으면 工業部門의 成長이 '70年代에 들어와 顯著的한 鈍化趨勢를 보이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이같은 事實은 主要 工產品의 計劃目標과 生産実績을 比較하여 보아도 뚜렷한데, 電力, 石炭等 「에너지」部門과 工作機械部門의 生産에서는 超過達成을 하였으나, 化

學, 建材工業部門等に 있어서는 目標의 下限線에 一致하거나 未達하는 不振한 生産実績을 7 個年經濟計劃에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現在 推進하고 있는 2次 7 個年計劃의 基本課業으로서 技術革命을 새로운 높은 段階로 進前시켜서 社會主義의 技術的 土臺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한 技術革命을 推進하는 것으로 보아도 北韓經濟가 生産部門의 非效率性을 克服하기 위하여 工業部門의 近代化를 實現시키지 않을 수 없는 限界點에 到達하였으며, 同時에 技術革命이 切實히 要請되고 있다는 點을 들수 있다.

結局 北韓은 이제껏 重工業優先發展의 社會主義工業化를 推進하면서 高度의 技術과 大量의 資本을 必要로 하는 重工業을 自力으로 發展시키고자 하여 왔다. 그러나 重工業部門의 이같은 集中的 投資는 軍需産業을 育成하기 위한 過重한 非經濟性投資로 因하여, '60 年代 中半期부터 北韓經濟의 全般的인 成長을 크게 鈍化시켰으며 産業間 不均衡을 深化시키는 結果가 되고 말았다.

다. 自給經濟体制의 固守

一般的으로 經濟發展過程에서 資本의 導入은 우리가 國民計定上 2 가지 側面에서 認識해야 하는데 첫째는, 國內投資分의 不足分을 補完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輸出을 超過하는 輸入을 補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開發途上國의 經濟開發을 速成化하는데 있어서

는 外資導入이 必要한 것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外資의 導入에 있어서는 「受容能力」(Absorptive Capacity)과 「償還能力」(Debt-Servicing Capacity)이 問題가 된다.

Walter Krause는 「開發途上國의 資本受容能力은 過度한 인플레이나 國際收支의 不均衡을 招來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制約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Ravi, Gulhati는 「外資의 受容能力은 資本의 限界收益率과 社会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割引率이 一致하는 投資의 量」이라 하였다. 註¹¹⁾ 따라서 海外資本導入의 基本方向은 國內資源의 開發狀態, 國民貯蓄率, 投資計劃의 内部均衡과 併行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난 '60年代의 韓國의 經濟發展過程에서 基幹産業部門의 育成이라든가 社会間接資本部門의 擴充을 위한 과감한 外資의 導入은 全体經濟의 年平均 10%에 達하는 高度의 成長率을 記錄할 수 있었는데, 韓國經濟의 이러한 急激한 成長은 무엇보다도 資本의 協力이 順調로워 投資의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北韓에 있어서는 國際的 經濟協力關係가 취약하고 註¹²⁾, 그것이 經濟沈滯의 基本要因을 形成하고 있는데, 蘇聯과 東歐諸國은 所謂 「經濟相互援助會議」(Comecon)에 加入하여 共產國家間의 國際的 分業을 비롯하여 經濟協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 東·西貿易의 急激한 擴大傾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그러나 北韓이 이와같은 蘇聯主導下의 經濟相互援助會議에 否定的

인 態度를 보여 온것은 所謂 그들의 「自立經濟路線」과 어긋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蘇聯에 對한 經濟依存이 金日成의 權力維持에 危懼이 된다고 生覺하기 때문이다. 北韓이 이와 같이 蘇聯의 現代修正主義를 두려워하고 있는 事實은 金日成의 權力이 「스탈린」主義的 暴惡과 獨裁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스탈린」死亡以後의 蘇聯의 政治思潮와 統治方式을 받아들인다면 金日成의 權力이 維持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며 따라서 實質的인 經濟發展의 要請보다는 獨裁權力的 維持를 優先시키고 있으며, 이와 같은 事實을 北韓은 「自立經濟」(Autarky) 體制로서 正當化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지난 1960年代를 보면 蘇聯 및 中共을 비롯한 12個 共產國家와 約30個國의 亞細亞, 「아프리카」非同盟諸國과 日本을 包含한 小數의 西方諸國과 그交易이 局限되었으며, 初期에는 對蘇貿易이 自然 對外貿易總額의 約90% 以上을 차지하여 왔으나 '60年代 後半期부터 貿易의 對象國이 漸次 增加하여 對蘇一刃倒에서 벗어났으나 아직도 蘇聯은 北韓의 貿易總額의 約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中共으로서 約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北韓은 貿易政策에 있어서도 철저한 自給自足型으로서 共產圈諸國 가운데에서도 國民所得에 對한 貿易의 比率이 가장 낮은 形便인데, 生産製品의 原價上昇을 無視하고 自體內에서 供給이 可能하면 充當하기 때문에 國際分業이라든가 比較優位의 生産費概念을 無視하고 있다.

그러나 近年에, 와서의 特徵은 北韓이 6個年計劃期間中 計劃目標 達成을 위하여 自由陣營과의 交易의 擴大와 特히 日本과의 經濟協力의 強化를 試圖하고 있는 點을 注目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特히 自由陣營과는 北韓의 緩和된 貿易政策과 自由圈內에서의 對外輸出競争의 激化를 背景으로하여 北韓과 西方諸國과의 貿易은 '70年代에 들어와서 活潑해졌다.

특히 西方諸國은 '70年代에 들어와서 北韓의 工業化의 推進에 따른 施設材의 需要增大에 注目하여 施設材輸出에 積極化를 보였는데, 지난 '68年 봄부터 平壤과 巴里에 通商代表部를 相互設置한 仏蘭西外에 西獨, 英國, 和蘭, 「오스트리아」 등이 北韓과 貿易去來를 擴大하고 있으며 이中에서도 「오스트리아」는 「빈」에 北韓의 通商代表部設置를 認定하고 있다.

한편, 現在 日本의 對共產圈貿易總額中 日·朝貿易은 蘇聯과 中共 다음가는 第3位에 있는데 去來品目으로서는 北韓에서 日本으로 約 90個品目이 去來對象이 되고 있으며 內容적으로는 日本의 輸出에서 機械類와 化學製品이 全體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纖維, 紙類, 鉄鋼, 金屬製品等임을 볼수 있다.

특히 北韓이 이와 같이 日本을 包含한 西方諸國과의 貿易擴大에 努力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70年代初 6個年計劃推進過程에서 工業·農業部門 全盤에 걸쳐 技術革新을 重點的인 課題의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인데, 國防建設과 經濟建設의 併進策을 내세우고 있는 北韓은 必要한 大型機械와 各種設備類의 調達을 共產圈貿易만으로는

不足하기 때문에 技術水準이 높은 西方諸國과의 貿易擴大에서 求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經濟的인 側面에서 볼때, 北韓은 西方諸國과의 이같은 交易의 擴大가 그들 經濟의 취약점을 補強해 주는 役割을 할 것이나 아직 加工도가 比較的 낮은 商品을 輸出하고 있기 때문에 輸出構造의 高度화가 時急히 解決해야 할 課題로 나타나고 있으며, 北韓 經濟의 發展에 따라서 經濟建設에 必要한 새로운 技術과 資本設備, 그리고 輕工業發展과 農村近代化를 위한 設備導入의 必要性이 커질수록, 北韓의 貿易規模는 擴大될 것이고 貿易構造의 高度화와 對自由圈貿易은 더욱 增大될 것이 展望되고 있다.

라. 國防經濟의 併進策

經濟力發展과 軍事力強化를 併行한다는 政策은 1966年 黨代表者會議에서 宣稱되었으나^{註13)}, 實際로는 1962年 10月, 「큐바」危機가 蘇聯의 양보에 依해서 收拾된 事實에 刺戟되어 所謂 國防에서의 自衛를 提唱하고, 同時에 經濟發展을 一定期間 遲延시키더라도 軍事力を 一層 強化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決意하게 되었다. 그러나 「큐바」危機가 解消된 以後, 國際緊張이 緩和되자 當初의 예정대로 7個年計劃을 推進하게 되었는데, 越南事態와 中·蘇紛爭의 激化는 北韓으로 하여금 軍事力 強化에 集中的 投資를 強要함으로써 前記한 黨代表者大會의 決定은 1964年以來 軍事力の 繼續적인 優

先政策을 確認한 것이다. 따라서 '71年度까지는 總予算의 30% 이상을 軍事費에 支出하였고 '72년부터는 現在에 이르기까지 名目上的 軍事費를 總予算에서 20%以下로 減少시켰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社会·文化施策費라든가 人民經濟費에 恩혜한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現在, 共産圈內에서도 蘇聯을 除外한 여타의 諸國보다 훨씬 많은 軍事費를 支出하고 있는데 (表-6), 1970年度의 경우

(表-6) 諸國의 軍事力 및 軍事費 比較 (1975)

	兵 力 (1,000명)	人口對比 (%)	軍 事 費 (100万弗)	1人當負擔 (弗)	軍事費/ GNP
美 國	2,086	0.96	102,691	477	7.0
蘇 聯	3,650	1.42	124,000	490	13.0
中 共	3,525	0.41	17,000	20	6.9
西 獨	340	0.57	15,220	242	3.7
韓 國	600	1.71	1,500	43	5.1
北 韓	495	3.40	1,000	61	15.9
日 本	235	0.20	5,058	45	0.9

資料: Military Balance, 1976.

共産國家들을 볼 때 國防費에 對한 支出이 GNP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볼 때 「불가리아」 2.9%, 「체코슬라바키아」 5.7%, 東獨 5.7%, 「헝가리」 2.7%, 「폴란드」 4.8%, 「루마니아」 3.0%에 達하고 있는 現象을 볼 때, 北韓의 軍事費 支出이 高率임을 볼 수

있다. 특히 '78年度 予算에 있어서도 北韓貨幣單位로서 約24億 4千6百萬원에 相當하는 軍事費를 支出 함으로서 總予算에서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弗貨單位로서는 約11億3千8百萬弗 相當에 達하고 있다. 더우기 現在 推進中인 2次7個年經濟計劃의 主要課題로서 國防建設을 強化하며 戰爭準備를 더욱 強調하고 있는 事實을 볼수 있는데, 이제까지 北韓의 經濟計劃이 失敗한 要因 가운데 하나가 이와 같은 軍事費의 過重負擔이라고 볼수 있는데, 現行 7個年 經濟計劃에서 이와 같은 軍事費 強化를 重點的인 課題로 올려놓은 事實은, 結局 經濟計劃과 實行사이에 커다란 차질을 招來할 要因으로 作用할 可能性이 크다고 볼수 있다.

第 4 章 北韓經濟의 部門別 實態와 問題點

前章에서는 이제껏 北韓의 主要時期別 經濟計劃과 關聯하여 北韓이 追求하여 왔던 主要政策路線을 檢討한 바 있다. 本章에서는 이와같은 主要政策路線과 關聯하여 現在 北韓經濟의 主要部門別 實態와 特히 그 問題點을 檢討 分析함으로써 長期的 側面에서의 北韓体制의 變化可能性을 予測해보려고 한다.

가. 國家財政의 機能과 現況

北韓經濟는 生産手段의 私有와 個人企業의 活動을 容認하지 않고 모든 經濟活動은 이른바 中央計劃經濟體制下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國家財政의 機能은 그들 經濟活動의 모든 部門을 反映하고 同時에 統制하는 役割을 가지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即, 北韓에서는 財政의 概念을 「貨幣資金의 計劃的인 集中과 利用에 關한 體系」로 보고 있는데 如實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으나^{註 14)}, 그밖에도 財政制度面에서 볼것 같으면 勞賃을 除外한 모든 純所得을 하나도 빠짐없이 財政部門에 흡수하게 되어있는 歲入制度나, 政權機關의 維持에서 부터 各種生産活動 및 非生産的 活動에 이르기까지, 모든 經濟組織의 活動에 所要되는 資金을 일단 財政部門을 通하여 供給하거나 또는 貨幣的인 統制를 받게하고 있는 歲出制度와 그 役割속에서도 特徵을 찾아 볼수 있다. ^{註 15)}

北韓에서 財政의 收入은 生産의 擴大와 社会的 需要를 充足시키
기 위하여 調整된다고 定義되어 있고 財政部門에 集中된 財源은
經濟·社會·軍事 및 政權機能의 維持等 各種用途에 充當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財政도 社会的 需要를 充足하는데 그 目的이 있
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生産手段의 全般的인 国有化 및 協同화와
그에 基礎를 둔 生産, 消費, 投資의 計劃的인 實施에 依하여서만
平等的 分配나 社會保障 및 福祉施策의 充實化, 그리고 生活水準의
向上等을 기할 수 있다고 強調되고 있다. 그럼으로 먼저 北韓에
서 財政部門을 通하여 充足되는 社会的 需要가 어떠한 內容을 가
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北韓經濟는 生産手段의 所有와 管理를 社
會化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社会的 需要는 바로 集合的으로 充足
되고 있는 慾求를 反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特
히 그러한 社会的 需要는 個人的인 選擇보다 強制的인 選擇에 依
하여 充足될 價値가 있다고 認定되는 慾求를 意味하고 있는데, 이
와 같은 經濟體制下에서는 當然히 生産材가 消費材보다 월등하게
큰 價値를 지니게 마련이고, 勞動者와 農民의 福祉보다 生産增大를
위한 計劃目標가 더욱 큰 價値를 갖게 마련이기 때문에 社会的
需要의 內容은 極히 制限된 範圍에 局限되는 것이 特徵이다.

이와 같은 事實은 '78年度 北韓의 予算을 보더라도 軍事費의
支出이 16%以上을 上廻하고 있는 것이나, 歲出의 58%以上에 達
하고 있는 經濟費中 圧倒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投資支出이
主로 軍需産業을 中心으로 하는 重工業部門에 配分되고 있는 事實,

或은 教育, 保健에서 体育, 社会保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広範
 囲한 社会的 「서비스」給付에 充当된다고 하는 이른바 社会·文化
 施策費가 歳出의 23.6%를 차지하고 있고(表-7), 特히 이 歳

(表-7) 1978年度 北韓의 歳出予算

(单位:北韓원)

区 分	總 額	構 成 比 (%)	对'77年比 (%)
予 算 總 額	152 億 9,320 万원 (71 億 1,311 万\$)	100	114.6
人 民 經 濟 費	89 億 4,837 万원 (41 億 6,203 万\$)	58.5	114.9
社 会 文 化 費	36 億 735 万원 (16 億 7,784 万\$)	23.6	112.3
軍 事 費	24 億 4,691 万원 (11 億 3,810 万\$)	16.0	116.8
管 理 費	2 億 9,057 원 (1 億 3,515 万\$)	1.9	114.9

資料: 国土統一院

南北韓經濟現況 및 成長潛在力 比較, 1978.

出項目에는 对内外宣傳, 工作費等과 같은 經費가 상당히 包含되어
 있을 것이라고 評價되고 있는 事實等은 北韓財政에 있어서 社会的
 需要가 무엇을 意味하고 있는지를 分明히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註 16)

그러므로北韓이 財政部門을 通하여 充足하는 社会的 需要는 北韓經濟가 지니고 있는 体制上的 理由로서 다음과 같은 制約要因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첫째로, 社会的 慾求是 北韓에 있어서 바로 價值慾求를 意味하기 때문에, 生産的 活動과 非生産的 活動을 区分하고 生産的 活動만이 새로운 價值를 創造한다고 보고있는 北韓에서는 擴大再生産에 기여할 수 없는 消費材나 「서비스」의 供給보다 生産材의 生産이 價值慾求의 充足에 있어서 優位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며, 둘째로 北韓에서는 社会的 需要를 充足하되 個人的 消費와 關聯을 갖고있는 財貨 및 「서비스」의 充足은 蓄積과 消費間의 均衡을 維持하거나 勤勞意慾의 刺戟, 또는 政治的 或은 그밖의 理由때문에 住民들의 福祉經濟의 運營을 保障하기 위한 統制裝置로서 作用하게 되는 것이다.

· 한편 北韓에서 所得分配의 調整은 財政이 担当하고 있는 主要한 機能의 하나인데 北韓에서는 生産手段의 私的인 所有가 容認되어 있지 않고 모든 企業은 社會化, 協同化되어 있기 때문에 物的인 生産의 結果로 創造되는 純所得은 勞賃과 企業 및 協同團體의 保留利潤을 除外하고 全額에 財政部門이 集中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私的 所得의 分配는 勞動所得에 依하여 이루어지지만 그 分配의 크기는 一次的으로 社会的 蓄積과 價值慾求의 充足에 依하여 必要로 하는 費用을 優先적으로 控除한 後 決定되며 勞動者 및 家計에 對한 分配는 經濟的 또는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는

데 가장 效率的이고 適正하다고 생각되는 分配에 符合하는 方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北韓은 財政, 即 租稅支出過程을 通하여 이 같이 決定되는 낮은 個人所得水準이나 不平等한 勞動所得의 分配狀態를 緩和하고 있다고 強調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北韓經濟가 지니고 있는 制度的 環境이나 條件에 비추어 보아 그러한 可能性은 희박하며, 北韓에 있어서 實質所得을 높이고 그 分配를 調整할 수 있는 財政的 措置란 保健教育, 住宅 등의 給付를 크게 擴大시키는 일과 勞動者, 農民의 間接稅負擔率(去來稅 및 企業의 利潤率)을 輕減시키는 일이지만 이 두가지 措置가 現在 北韓의 實情에 비추어 볼때 큰 效果를 期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註 17)

以上과 같이 北韓의 財政에 있어서도 所得分配의 機能은 매우 重要한 機能으로 되어 있는데 個人所得의 實質的인 增加나 그 均等化가 重要한 關心事가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人的, 物的 資源을 消費에 구애됨이 없이 그들 計劃經濟의 計劃目標를 達成하기 위해 더 많은 資金을 財政部問에 吸收하고 이를 主로 政治的 指導目標과 一致되는 諸用途에 集中配分하는데 重点을 두고 있기 때문에, 北韓이 強調하고 있는 바와 같이 勞動者의 生活水準을 높이는 일이나 福祉施設을 補充하는 일에 거의 寄與하지 못하고 있다는 事實을 알수 있다. 結局 北韓에 있어서 財政部門은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社會的 蓄積의 手段」으로서의 役割을 하고 있는데 去來稅나 企業의 利益金의 形態도 予算에 集中되는 所得은 그 一部가 社會的 慾求의 充足에 利用되지만 그中 大部分이 그들 計劃

經濟의 目標達成을 위한 資金形成에 充當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나. 農業의 集團化와 生産現況

(1) 農業經營體制

現在 北韓에서는 農業經營體制가 協同農場을 主軸으로 하는 社會主義的 集團農業經營體制를 取하고 있는데, 北韓은 1946年3月, 「土地改革實施에 關한 法令」과 「同施行에 關한 臨時措置法」을 공포함으로서 土地의 沒收와 再分配를 實施하였다. 그러나 1953年까지는 잠정적인 個人農時代를 거쳐서 休戰後 1954년부터 '58년까지 農業集團化를 強行함으로서^{註 18)}, 現在 約 3,700個의 協同農場과 國營農牧場에 吸收되어 오늘날 共產圈諸國에서도 가장 경직화 된 集團農業經營體制를 이루고 있다.

(2) 生産基盤과 穀物生産実績

協同農場의 作業體制는 管理委員會 밑에 作業班, 分組 및 作業員이 있으며, 1965年11月부터는 이른바 「分組都給制」를 實施하고 있는데, 1976年 現在 北韓의 總耕地面積은 2,071千ha로서, 耕地率이 11.6%에 達하고 있으며 그中 田이 1,374千ha로서 66.4%, 畓은 697ha로서 33.6%에 不過하다.

北韓은 1960年代에 10年間に 걸친 7個年經濟計劃期間에 基本

建設投資額 107 億원中 農林, 水産部門은 19.7 %에 해당되는 29 億원을 投資했으나 農業部門의 生産実績은 不振했으며, '70 年代의 6 個年計劃期間中에도 農業部門에 對해 全投資額의 20 %를 넘는 比重을 投資하였으나 生産의 增加率은 如前히 不振한 實情이다.

農業機械化現況은 現在 小型「트랙타」 保有台數가 約 7 ~ 8 万台에 達하고 있으며 肥料의 施肥量이 成分含量으로 아직도 ha 당 200 kg에 不過하여 韓國과 比較하면 절반정도에 不過한 實情이다.

北韓은 1974 年末에 所謂 金日成의 農村「태세」 10 周年記念 總和報告에서 同年의 「알곡」 生産高를 700 萬噸으로 發表하였으나 이 같은 実績을 分析해 보면 糧穀基準으로 穀物 324.8 萬噸, 薯類 約 125 萬噸으로 나타나 있는데 '73 年과 '74 年에는 所謂 알곡 生産 增加率을 前年對比 各各 30 % 以上으로 發表하였는데 農業生産性의 特殊性과 北韓의 農耕地 擴大実績 및 諸般生産條件의 變化趨勢로 보아 特別히 73 年과 74 年사이에 異例적으로 穀物生産增加率이 30 % 以上 增加될 수 있는 根拠는 없었다.

한편 ha 당 米穀生産량을 分析해 보면 '75 年度의 경우 2,700 kg으로서 單位面積당 生産性은 우리에 比해서 훨씬 뒤떨어지고 있으며 現在 食糧配給의 雜穀對 主穀의 混食率이 7 : 3 내지 5 : 5 로서 社會階層에 따라 多樣的 양상을 볼수 있으며^{註 19)}, 住民의 食生活은 낮은 水準에서 統制되고 있다. (表-8)

北韓은 지난 '70 年代에 들어와서 5 次黨大會에서 強調한 것처럼 農民의 「4 化運動」 即, 農業部門의 機械化, 水利化, 化學化 및 電

(表-8) 1976年度 穀物生産 実績

区 分	生産 実績
穀物生産量 (薯類 包含)	454.2 万噸
쌀	188.4 万噸
麦 類	5.9 万噸
옥수수	215.1 万噸
其 他	24 万噸
水 産 物	137.9 万噸

資料： 国土統一院刊, 南・北韓經濟力 比較.

氣化를 指向하고 있는듯 하나, 軍事費增加에 밀려 不振한 狀態에 있는데 오늘날 北韓에서 營爲되고 있는 農業은 自由世界の 農業經營과 比較하여 볼때, 여러 側面에서 根本적으로 特異한 差異點을 發見할 수 있으나 그中 重要한 몇가지를 든다면, 우선 農業管理에 있어서 經濟的인 指導와 政治的인 指導下의 單一性 原則을 適用하고 있으며 生産部門別, 地域別 專門管理를 推進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이와 같은 事實은 所謂 北韓이 말하는 「靑山里精神」에 의거한 것인데 計劃적인 管理制度를 採択하여 生産手段을 社会化로 이끌어 버린 것은 勿論, 궁극적으로 農民들의 集團勞動을 한층 強化하여 全体農業部門의 生産実績을 提高시키려는데 目的이 있었던 것이다.

다. 資源賦存實態와 産業現況

(1) 重工業部門과 間接資本 現況

韓半島의 地理적인 特徵으로 因한 南·北韓 賦存資源의 差異는 1945年 解放當時를 基準으로 볼때, 重工業의 80%가 北韓에 集中되었던 原因이 되고 있으며, 重工業發展에 基盤이 되고 있는 鐵鉍石의 90%以上, 無煙炭의 87% 등이 北韓에 集中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地下資源과 動力資源을 바탕으로 主로 鉍業部門과 金屬工業部門의 發展與件이 北韓은 初期부터 有利하였는데, 8.15 解放前에 이미 60萬噸의 製鐵施設과 16萬噸의 製鋼施設이 大部分 北韓에 位置하고 있었기 때문에 機械工業과 金屬工業部門에 커다란 影響을 미쳤다.

'76年度 現在 北韓의 鋼鐵生産能力은 約 342萬噸에 達하고 있으며, 化學肥料의 生産量은 約 270萬噸에 達하고 있다. 「에너지」部門은 '76年度에 發展施設容量이 約 460萬kw에 達하고 있는데, 「에너지」部門은 社會間接資本으로서 國民經濟發展에서 外部經濟적인 効果와 새로운 産業의 誘發效果를 極大化하기 위하여 必要不可欠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現在 北韓은 施設面에서의 老朽化等 出力面에서 커다란 問題點을 안고 있다.

原來, 社會間接資本은 財貨와 用役의 生産에 直接使用되는 資本이 아니라 間接적으로 生産活動을 支援하고 促進하는데 必要한 資本을 말하고 있는데, 鐵道와 港灣等 部門은 經濟發展의 初期段階에 있어서 先導産業으로서의 役割을 担当하고 있지만 資本의 規模가 방대하고 회임기간이 길어서 經濟開發의 初期段階에 있어서는 가장 重要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註 20)

그러나 現在 北韓의 輸送體系는 主로 鐵道와 海運手段뿐인데, 低地帶인 西海岸과 平壤一帶의 道路만이 整備되어 있고, 自動車輸送의 比重이 적을뿐 아니라 鐵道依存率이 높아서 道路密度는 '76年 現在 1km^2 당 169.6m 에 不過하다.

다음으로 石油化學部門에 있어서는 北韓의 原油處理能力이 年間 100萬噸에 不過함으로서 基礎「에너지」를 石炭에 依存하고 있는 낙후된 現象을 보여주고 있으며, 機械工業部門은 北韓이 이제껏 軍需産業中心의 重工業優先策에 따라 가장 力點을 두고 開發해 온 部門인데 自動車生産能力의 경우, '74年에 1萬台, '75年에 1.5萬台에 達하고 있으며, 最大船舶建造가 2萬 DW噸에 不過하다.

이와 같은 現象은 北韓이 지금까지 軍需産業의 開發을 위해 關聯産業인 動力 및 工作機械工業을 中心으로 育成하였으며, 內向性 經濟開發과 經濟의 採算性을 無視하고 軍需産業爲主의 開發에 차중하였음으로 小數의 機械類도 自体生産하는데 注力하였기 때문에 發

展에 스스로의 限界를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2) 輕工業 部門

社會主義計劃經濟體制下的 北韓에서도 經濟發展의 目標로서는 「人民生活의 劃期的 向上」과 「重勞動과 輕勞動의 差異를 解消」한다고 되어 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重工業과 關聯된 軍需工業部門에 可用資源을 集中的으로 投入하여 왔기 때문에 北韓住民들의 實際生活과 關聯된 輕工業部門의 發展은 抑除되어 왔다.

오늘날 北韓에서 個人의 慾求를 充足시켜주는 것은 經濟의 最終目的으로서가 아니라 主로 住民들의 不滿을 解消하고, 生産活動에 必要한 勞動力을 刺戟하기 위한 出資에 不過하기 때문에 住民들의 福祉厚生은 本質적으로 副次的인 問題에 不過하다. 註 21)

따라서 住民消費生活品인 輕工業部門을 보면, 電子製品인 「라디오」 生産이 겨우 國內需要에 充當할 정도이며, 現在까지 TV受像機와 冷蔵庫도 小量을 蘇聯과 日本에서 輸入하고 있는 實情이며, 더욱이 製品의 種類가 單조로울 뿐 아니라 生産目標自体가 強要되고 있기 때문에 生産單位工場에서는 計劃量에 一致시키기 위한 量的인 生産에만 置重하고 있고 製品의 品質을 考慮하지 않고 있는 것이 特徵인데, 이같은 現象은 消費者가 選擇의 餘지가 없으므로 品質의 向上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原因이 되고 있으며, 오늘날 韓國의 輕工業製品의 種類와 品質이 매우 多樣化되어 있고 消費者의 選好와 特히 海外市場의 기호에 맞추어 廣範圍한 量産體制를 다루

고 있는 事實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라. 貿易規模와 國際收支

(1) 貿易政策과 規模

北韓에서는 共產圈諸國의 一般類型과 마찬가지로 對外貿易이 國家管理에 依한 計劃貿易으로 實施됨으로서 國際貿易이 國內經濟의 從屬된 形態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註22) 이와 같이 計劃적인 輸出入을 實施하기 위하여 對外貿易이 全面 國家管理下에 있는데 한가지 特徵은 國際貿易에서 政·經不可分の 原則을 基本으로 삼고 있음으로 經濟的 利害關係보다 政治的인 目的을 위하여 奉仕해야 하며 對象地域에 따라서 原則에 差異가 있을 뿐이다.

共產主義諸國에 對해서는 政治優先, 資本主義諸國에 對해서는 經濟的 利害關係에 따라 政·經分離의 原則을 내세우고 貿易關係의 擴大를 圖謀하고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은 韓國이 처음부터 開放體制를 指向하여 對外貿易과 資本協力을 擴大하고 이에 適應할 수 있는 產業政策을 取하여 輸出主導型의 成長과 國際競爭속의 工業化를 實施하여 왔던 點과 根本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으로 現在 北韓은 貿易의 規模와 國民經濟의 貿易依存도가 적은 것이 特徵인데, '76年度の 경우 輸出이 6億5千萬弗, 輸入이 8億2千萬弗로서 全體貿易規模가 14億7千萬弗에 不過한 事實을 볼수 있다. (表-9)

(表-9) 北韓의 貿易規模

年 度	貿易總額 (X+M)	輸 出 額 (X)	輸 入 額 (M)	貿易差額 (X-M)
1970	629	301	328	- 27
1971	866	302	564	- 262
1972	1,039	399	640	- 241
1973	1,340	498	843	- 345
1974	1,980	677	1,303	- 626
1975	1,907	814	1,093	- 279
1976	1,487	658	829	- 171

資料： 国土統一院

南北韓經濟力比較, 統一政策, 1978, 4卷1号

北韓의 國際收支現況을 6個年計劃을 推進하기 始作한 '71年부터 注視할 때, '71年度부터 國際收支의 赤字가 急激히 擴大되기 始作하여 '74年度에 와서는 6億2千萬弗의 赤字를 記錄하고 있을 뿐 아니라 現在까지도 2億弗 相當의 赤字를 記錄하고 있는데, 輸出構造에 있어서도 65%以上の 農·水産物을 위시한 1次産品爲主로 되어있는 것이 特徵이다.

対象地域도 지난 '73年까지만 해도 對共產圈輸出이 全体の 71.2%이었고, 非共產圈에 對해서는 26.8%를 차지하였으나, '75年度에

와서는 對共產國輸出이 59.2%로 감소되고 非共產國輸出이 40.8%를 차지하게 됨으로서 自由國과의 貿易이 漸次 增加하고 있는 現象을 볼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蘇聯 및 中共等 共產諸國과의 貿易이 大宗을 차지하고 있으며 最近의 自由國과의 貿易增大는 主로 對日貿易의 擴大에 起因하고 있는데, 北韓의 對日貿易은 '72年1月, 「日, 朝 貿易擴大合議書」의 調印以後 크게 伸張되고 있으나 '74年度의 對日 輸入은 前年度에 比하여 2.5倍로 急增하였으나 輸出은 26%에 그쳐 對日貿易의 赤字擴大가 今後의 問題點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貿易赤字의 擴大는 對外的인 經濟協力과 그依存度의 深化를 意味하는 것이나 最近 外資의 不足으로 對西方諸國에 對한 支給延滯事態가 속출하게 됨으로서 貿易擴大마저 難關에 봉착하고 있으며, 結果的으로는 全体貿易規模마저도 '75年度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北韓이 '70年代에 들어오면서 부터 兩·北韓經濟力의 隔差가 擴大되는 것을 意識한 나머지 그들이 推進하였던 6個年計劃을 조기달성하기 위하여 西方諸國으로 부터 無理한 資本의 導入을 試圖하였으나 對內的인 投資條件의 未備로 外資의 「受容能力」이 없었는데다가 國際競爭力이 있는 輸出産業을 開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導入外資에 對한 原利金償還마저 이행하지 못하여 지난 '76年末 現在 延滯總額만도 6億弗이 넘고 總外資導入額이 約

22 億弗에 達하고 있다. (表-10)

(表-10) 北韓의 外債現況

年 度	外 債 規 模	延 滯 現 況
1971	4,000 万弗	80 万弗
1972	3 億 2,580 万弗	190 万弗
1973	3 億 7,030 万弗	7,180 万弗
1974	5 億 2,520 万弗	1 億 6,820 万弗
1975	1 億 7,740 万弗	2 億 5,290 万弗
1976	2,910 万弗	6 億弗 水準

資料： 国土統一院

南北韓經濟力量 및 成長潛在力 比較, 1978.

一般的으로 資本의 導入은 「開發途上國이 自力成長의 基盤위에서 만족할 만한 成長率을 이룩하는 지점까지 經濟開發을 速成化하는 것」註 23)이라고 하였는데 北韓이 '70年代 初期에 들어와서 基幹 産業의 育성과 社会間接資本扩充의 基盤없이註 24), 外資의 導入을 단행하였기 때문에 實効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이다.

第5章 北韓經濟体制의 長期展望

北韓經濟体制의 長期展望(10年後)을 예측하기 위하여 이제껏
北韓이 要求하여 왔던 年代別 經濟計劃과 主要經濟 施策等を 關
聯하여 檢討하였고, 더욱이 이와 같은 施策과 經濟体制上的 限界
에서 야기되는 北韓經濟의 主要部門別 現況과 問題點까지를 아울러
檢討하여 왔다.

一般的으로 오늘날 蘇聯을 爲始한 共產圈經濟体制의 變化와 改革
은 그들 體制가 지니고 있는 固有的 構造的 矛盾으로 因한 經濟
沈滯을 打開하기 위한 試圖인데, 이른바 社會主義的 生産方式은 中
央集權的인 劃一的 計劃과 統制에 依하여 「價值」(Value)와 「費
用」(Cost)을 無視하고 「量」(Norma)의 確保에 모든 政策
의 重點을 두어 왔기 때문에, 經濟發展以前의 初期의 「均貧狀態」에
있어서는 「外延的 成長」(Extensive Growth)이 問題가 되지 않
았으나, 經濟發展이 一定한 水準에 오르면 勞動生産性的 低下, 「코
스트」의 增大等으로 因하여 生産성이 停滯됨으로서 「內延的 成長」
(Intensive Growth)의 問題가 註²⁵) 야기되고 있는데, W. Wi-
lcznski에 依하면 이같은 理論的 区分이 經濟開發의 實際에 援
用될 만큼 注意를 준것은 1950年代 中葉이었다고 한다.

蘇聯에서는 이제껏 工業部門이 출공 이터했고 農業部門은 더욱
심했는데, 지난 1966年度에는 720個에 達하는 生産單位에, 67年

度에는 5,500 個, 68年度에는 6,000여개로 擴大하여 自由主義經濟 制度를 導入하여, 蘇聯全體工業生産에 40%를 達하고 있는데, 새로운 制度의 導入은 ①生産方式의 企業體獨立性認定 ②企業獨立採算制의 強化, ③價格制度의 合理化, ④勞動者에 對한 物質的 關心의 刺戟等으로 要約되고 있다. 註26)

그러나 이제껏 觀察한 北韓經濟의 發展過程과 問題點을 볼때, 北韓이 '70年代에 들어와서 6個年經濟計劃을 推進하면서 야기된 産業間의 不均衡, 償還能力을 초월한 過重한 外資의 輸入, 石油波動以後, 國際市場에서의 北韓輸出品의 減退및 이들 輸出品의 價格의 下落等으로 因한 輸出의 不振, 經濟管理面에서의 隘路, 輸出能力의 不足等으로 심각한 苦難에 処해 있는데 今後, 北韓體制및 基本路線의 變化를 促進시키는 가장 큰 要因은 이같은 經濟問題인 것이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이같은 北韓經濟體制가 當面하고 있는 根本的인 問題點을 ①閉鎖體制의 固守, ②重工業優先策으로 因한 産業間 不均衡, ③國防, 經濟의 併進策으로 因한 投資財源의 不足, ④以上 3가지 問題點과 關聯한 全出經濟의 計劃機能의 米속等으로 分類할 수 있는데, 現在 北韓이 推進하고 있는 2次7個年計劃과 關聯하여 첫째로, '80年代 中半期까지의 短期的 側面에서의 變化要因과, 둘째로, '80年代 後半期까지 次期展望計劃과 關聯하여 北韓經濟體制의 變化를 予測해 보려고 한다.

가. 短期的 側面에서의 變化予測

北韓은 現在 未曾有의 一大轉換期에 있는데 우선 對外的으로, 對蘇關係의 冷却, 美·中共關係의 改善, 日·中共平和友好條約에 따른 國際關係의 混亂, 韓國의 飛躍的 經濟發展에 따른 南·北間 經濟力의 격차, 輸出의 부진과 外債償還의 遲延, 이로 인한 國際的 위신의 失墜等으로 말미암아 北韓의 外交關係는 國交의 擴大에도 不拘하고 深刻한 危機에 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對內的으로 政治的으로는 後繼者問題와 權力集團의 再編成을 위요하여 長期的으로는 政治的 混亂이 일어 날 것이 展望되고 있으며, 經濟的으로는 6 僱年計劃의 失敗, 技術, 人力의 不足, 社會間接資本部門의 未洽과 產業間 不均衡의 擴大, 社會的으로는 全般的 能率의 低下, 官僚的 行態의 蔓延등으로 沈滯된 모습이 顯著히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問題點들은 거의 必然的으로 그들의 體制와 基本政策에 對한 再檢討를 強要하고 있기 때문에 經濟體制와 追求하는 目標은 적어도 部分的으로는 極히 制限된 範圍內에서 어느정도 修正을 받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그러나 根本的으로 北韓體制의 原動力은 政治的「이데오르기」에 있기 때문에, 經濟政策은 그들 權力集團의 政治的 目的을 수행하기 위하여 運營될 뿐 아니라 軍事力 自衛도 이제껏 그들의 政治路線을 保衛하기 위하여 動員되어 왔기 때문에 政治的인 見地에서 본다면 北韓

의 體制와 政策의 路線이 變化할 可能性이 短期的으로는 거의 없
고, 長期的으로도 相當히 稀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經濟的 側面에서도 經濟改革이 本格化되기는 어렵고, 期間
동안을 一種의 「緩衡期」로서 다만 部分的인 合理化가 試圖될 것
이 予想되는 몇가지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 1976年 12月, 李鍾玉이 總理로 登用될 때까지 威勢를 떨친
「3大革命小組活動」은 漸次 弱화되어 가고 있을뿐 아니라, 期間中 內
閣의 기구도 經濟爲主로 改編하여 資源開發部, 原子力委員會 등을 新
設하였고, 今年 7月以後 在外常駐 大使를 大幅 교체하여 主로 經濟
專門家를 爲主로 하여 資源外交活動을 強化하고 있는 現象을 볼
수 있다.

둘째로, 今年도 金日成新年辭를 보면, 官僚主義를 거론 하였는데
지난 77年 12月 15日 政權機關改編과 關聯한 金日成의 最高人民
會議 演說에서 經濟活動에서의 官僚主義跋扈 및 法順序規定의 준수를
促求하는 強力한 語調를 볼 수 있다.

이미 政權機關改編時 明白해진 것과 같이 北傀式 官僚主義를 비롯
한 不条理는 현재 심각하므로 그들은 政務院산하 國家檢閱委員會를
폐지하는 대신 별도로 「社會主義法務生活指導委員會」를 발족시켜서
對行政府, 對民속칭 환동을 強化할것을 다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要
領主義, 保身主義, 條件타발, 허위보고, 等이 심해 진것을 공공연히
警告하기에 이른 것이다.

세계로, 北韓은 그동안 2年間の 완충기간을 거치면서 今年부터 2次7個年經濟計劃을 착수 하였는데, 1977年4月 金日成은 北韓을 訪問한 日本의 読売新聞記者團과의 會見에서 7個年計劃期間中 工業部門의 生産高를 現在의 2倍로 增大시킬 예정이며, 海外로 부터 새로운 資本의 導入없이 어디 까지나 自力更生의 原則에서 内部資源을 動員, 利用할 것이나 先進技術은 一部 導入한다는 点を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金日成의 發言은 中央人民委員會와 政務院의 經濟部署의 大幅的인 보장이 이루어진 가운데 1984年度를 目標로 確定 發表된 2次7個年計劃에 그대로 반영 되었는데 計劃의 特徵은 다음과 같다. (表 - 11)

첫째, 總量部門에서 國民所得의 增加率과 工業成長率이 6個年計劃에 比하여 顯著히 낮게 査定된 点を 볼 수 있고, 둘째, 7個年計劃의 基本課業으로서 經濟의 現代化, 主體化, 科學化를 提示한 가운데 特히 科學技術分野를 重點的으로 強調하고 있으며, 産業部門別로는 鎔業 및 「에너지」部門에 力점을 두고 있다.

北韓은 이와 같은 7個年計劃을 推進하기 위하여 막대한 財源이 所要되고 있는데, 現在 이같은 財源을 充足시킬 만한 内部財源을 全혀 生覺조차 할 수 없으며 海外部門으로 부터 外資의 確保역시 거의 不可能한 상태에 있는데, '77年度에 朴成哲이 直接 蘇聯을 訪問하여, 支援을 要請하였으나 다만 相互友好關係의 持續이라는

(表 - 11)

主要計劃 目標의 比較

	6 個年 計劃	7 個年計劃 目標	10 大經濟建設 目標
工業部門成長率		12.1%	
工業總生產		2.2 倍	
國民所得			
鐵 銅	380- 400 萬屯	740- 800 萬屯	1,200 萬屯
石 炭	5,000-5,300 萬屯	7,000-8,000 萬屯	10,000 萬屯
電 力	280- 300 億 Kwh	560- 600 億 Kwh	500 億 Kwh
세 멘 트	750- 800 萬屯	1,200-1,300 萬屯	3,000 萬屯
化學肥料	280- 300 萬屯	500 萬屯	500 萬屯
알 곡	700- 750 萬屯	1,000 萬屯	1,000 萬屯
水 產 物	160- 180 萬屯	350 萬屯	500 萬屯

資 料 : 國土統一院

라는 声明으로 끝나던 事實과 現在 北韓은 23億 - 28億 3 상당의 對外負債를 지고 있는데, 北韓의 現國際收支能力으로 볼때 上환문제가 크게 問題點으로 대두하고 있다.

한편 對內的으로 生産施設이나 機械設備를 生産할 수 있는 能力이 아직 國際水準에 크게 未洽한 상태이고, 計劃經濟의 初期發展段階에 있어서와는 달리 科學技術의 發展에 基礎한 勞動生産性의 提高없이는 高度의 成長이 不可能하게 되는 바, 北韓의 科學 및 技術水準이 아직 高度成長을 可能케 할 만큼 發展해 있지 못하다는 事實을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産業間의 不均衡發展이 經濟全般의 成長을 크게 沮害하고 있는데 北韓에 있어서 石油化學 및 電子工業部門은 여타 産業部門에 比해서 크게 落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先進工業諸國과의 國際競争을 하기 위해서는 重化學工業部門이 先導産業으로서의 機能이 크게 要請되는 北韓의 경우, 石油化學部門과 電子産業部門이 크게 落後되어 있기 때문에 計劃수립자체의 限界에 到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 볼때, 北韓은 소위 閉鎖的 自給經濟體制의 高수로 2次 7 個年計劃의 基本方向이 設定되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70年代初期에 있어서 北韓은 一時的으로 部分的 開放을 試圖하였으나 對內外的으로 矛盾의 惹起를 自招하였기에 이를 방지하려는데 7 個年計劃을 통한 方向의 轉換이 不可避하다. 또한 勞動

生産性的 向上이 限界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大單位經濟基地와 施設의 建設이 없이는 經濟發展이 不可能한 상황에 이르렀으나 여러 가지 條件이 그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今後 經濟沈滯의 打開은 더욱 어려워 지리라고 판단한다.

이와 같이 經濟發展을 위한 制度改革의 必要성과 現體제의 固守로 因한 發展의 限界要因을 놓고 볼 때, 北韓이 短期的인 側面에서 는 우선 技術의 革新, 能率의 提高를 위하여 西方先進國과의 經濟 協力を 적극 推進할 수 있는 開放體制로의 轉換可能性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西方諸國과의 經濟協力이란 部分的으로 施設財를 導入하는 姑息的인 次元이 아니고 貿易, 資本, 人力等 広範圍한 分野를 意味하는 것이다.

둘째로, 經濟計劃의 目標을 多小 下向調整한것 以外에는 軍備增強과 重工業爲主의 政策을 止揚하고 國民生活水準向上을 위한 消費材産業의 質的 改革도 그 實現이 不可能한 것으로 보인다. 現在の 北韓은 지난 1933-37年의 蘇聯의 2次5個年計劃과 마찬가지로 重工業과 輕工業間의 投資比率이 約 8:2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註 27)

세째, 經濟計劃의 入案 및 執行의 方法을 改革하여 官僚的인 通路를 통한 資源配分の 일은 多小 縮少될것이 예상되며,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어느정도 완화하여 地方 및 下部機關分權을 試圖할것이 예상되나 여기서도 價格機構의 合理化로 因한 資源 按配의 効率化

는 期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네째로, 經濟的 誘因效果를 強化하기 위한 일련의 措置와 이에 對한 部分的 改革은 多小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같은 部分的인 改革의 必要性에 對한 認識의 징후는 바로 '76年 12月에 수립된 李鍾玉內閣이다. 即, 新內閣은 經濟實務者를 主軸으로 하는 內閣으로서, 비록 北韓의 基本路線을 變更시킬 수 있는 權力은 갖고 있지는 못하나 混亂속에 處해 있는 問題를 收拾하는데 있어 實用的이고 合理的인 政策을 推進해 나갈 것으로 予想되고 있는데, 實例로서 李鍾玉은 就任이래 지금까지 金日成의 革命路線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機會있을때마다 經濟의 合理化와 科學化의 必要性을 強調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資源이 그리 豊富하지 못한 北韓이 今後 이같은 經濟的 諸問題點들을 解決하기 위하여서는 一聯의 部分的 措置를 取할 必要가 있다고 判斷되고 있는데 即, 毛沢東以後의 中共과 비슷한 路線을 取할 必要가 절실하다 하겠으나, 中共에 있어서는 傳統的으로 華. 鄧의 政治的 勢力이 隱然中 強力하였는데 比하여, 北韓에서는 原來 이와 같은 路線에 對한 支持勢力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金日成이 아직 健在하고 있는데다가, 그 以上으로 急進主義的 路線을 指向하고 있는 金正一이 後繼者로 되어 있느니 만치 中共과 같은 大革新을 短時日內에 斷行할 可能性은 短期的으로 매우 稀薄하다고 볼 수 있다.

以上과 같은 現況을 볼 때, 短期的 側面에서는 「變化促進要因」이 「變化抑制要因」보다 적을 것이므로 經濟改革이 오늘의 蘇聯과 東歐諸國처럼 本格化되기는 어렵고, 이 期間동안 一種의 「緩衝期」로서 그들 政治體제의 기본 테두리내에서 部分的인 合理化의 試圖가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이같은 現象은 東歐諸國의 經濟改革過程에서 볼 때, 現在 東歐諸國에서 進行되어 왔거나 進行되고 있는 經濟改革은 根本적으로 中央集權的 計劃經濟의 分權化 改革으로 우리가 파악하여 왔으며, 그 經濟的 意味가 「外延的 成長」(Extensive Growth)方式에서 「集權的 成長」(Intensive Growth)方式으로의 政策的 轉換에 있음을 보아 왔는데, 本質적으로 東歐諸國의 經濟改革이 그 性格에 있어서 「開放的」(Open-ended)이고, 經驗에 비추어 계속적인 修正을 해나가고 있음으로, 共通點과 相異點이 國家에 따라 앞으로도 그대로 계속 되리라고는 予測되지 않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即, 東歐諸國에 있어서도 體系的인 改革을 斷行하는데 있어서는 「루마니아」가 가장 느렸으며 改革의 強度로 보아 가장 낮은 한 쪽끝을 차지하고 있으며, 1967年 後半期의 經濟改革을 推進하기로 決定을 내렸을 때에도 그 改革案을 設計함에 있어 가장 慎重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改革의 兩極端 「체코」 「헝가리」와 「루마니아」사이에 놓여 있는 나머지 國家들은 推進된 經濟改革의 強度에 依해서 그 等級을 分類한다면, 東獨과 「불가리아」가

蘇聯과 「폴란드」보다 다소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提起되는 問題는, 果然 이같은 經濟的 改革이 그들의 政治的 社會的 改革과 無關係하게 進行될 수 있으며 合理的으로 그 機能을 發揮할 수 있을까 하는 問題이다. 더욱이 東歐諸國의 改革의 實驗이 恒常 蘇聯의 対応을 意識하면서 行하여 진다면 結局, 그것은 蘇聯自體의 民主化 없이는 極히 어려운 作業이라는 展望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새로운 經濟體制가 期待되는 成果를 낳을수 있으려면 既存權力體制의 相當한 變化없이는 不可能하다는 것이 一般的인 認識이다.

나. 長期的 側面에서의 變化予測 (1978-1988)

이제껏 우리는 北韓經濟의 現況과 當面한 여러 가지 問題點을 短期的 側面에서 檢討하였는데, 特히 '80年代 初半期까지 7個年計劃推進過程을 中心으로 볼 때, 全體的인 經濟體制의 「變化促進要因」은 「變化抑制要因」보다 적기때문에 經濟改革과 體制의 變化가 오늘의 蘇聯과 東歐諸國처럼 本格化되기는 어렵고, 이期間동안을 一種의 「緩衝期」로서 그들 政治體制의 基本 테두리 안에서 極히 部分的인 範圍內에서 合理化의 試圖가 있을 것으로 展望한 바 있다.

그러나 向後 10年後를 기준으로 長期的으로 볼 때, 크게 다음 세가지 假定을 설정할 수 있는데 첫째로, 金日成體制가 그대로 持續되는 상황이고, 둘째로는 金日成이 권좌에서 퇴진하고 金正一體

제가 구축되는 狀況을 들 수 있고, 세제는 金日成退陣 以後 專門
家 中心의 集團指導體制가 成立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以上
세가지 가정에서 첫번째와 두번째는 거의 비슷한 性格을 띠우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1) 金日成, 金正一體制가 持續되는 경우

金日成, 金正一體制가 持續되는 경우에는 '80年代 後半에
가서도 北韓이 오늘의 蘇聯과 東歐諸國처럼 全面的인 開放社會로
轉換할 徵候는 찾아 볼 수 없다.

重工業優先策과 軍事力 強化, 閉鎖社會로 부터 야기되는 經濟發展
의 限界要因이 있으나 根本的으로 이 두가지 問題는 이제껏 金日成
體制維持의 基本的인 명분이 되어왔기 때문에, 大幅的인 路線의 變
更은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같은 경우 北韓으로서
는 두가지 問題에 直面하게 되는데, 첫째는 '80年代 後半期에 가
면 先進產業國으로 변모하는 韓國經濟의 發展으로 南·北間 國力の
隔差를 北韓이 어떻게 対応하느냐 하는 問題다. 둘째로는, 現在
急激히 變化를 거듭하고 있는 中共과의 關係를 들 수 있다.

'80年代 後半期의 韓國은 人口1人當 GNP가 約 7,000弗로 予
想되고, 輸出規模만도 500億弗 以上이 될것으로 予測되고 있는데,
이같은 경우 北韓이 비록 2次7個年計劃을 成功的으로 完遂한다.
하더라도 南·北韓의 經濟規模는 '86年度 韓國의 5次5個年計劃이
끝나면 8-10:1의 격차가 予想된다. (表-12)

(表-12) '81年度까지 南北韓 GNP 推計

(單位：億弗)

区 分		77年	78年	79年	80年	81年
韓 国	GNP	308.5	369.6	431.4	503.1	586.6
	1人当GNP	847	1,050	1,147	1,317	1,512
	人 口 (百 万)	3,641	3,699	3,758	3,818	3,879
北 韓	GNP	67.1	73.23	79.82	87.01	94.84
	1人当GNP	403.7	430	457.6	487.1	518.5
	人 口 (百 万)	1,664	1,703	1,744	1,786	1,829

資料： 南北韓經濟力量 및 成長潛在力 比較

国土統一院, 1978, p.50 .

註： 韓國人口增加率 1.6% 적용

北韓人口增加率 2.4% 적용

더욱이 이제껏 金日成의 精神的 支柱는 中共이었으나, 毛沢東死後 中共이 西方世界를 相對로 推進하고 있는 對外經濟政策은 이미 지난 1年間만 보더라도 重大한 變化를 보이고 있다. 今世內에 現代化達成을 표방한 中共은 새로운 開放策을 展開하여 이미 '77年 上半期에 비해 輸出은 28.5%가 增加하였으며 輸入은 輸出增加量을 훨씬 超過하여 60%에 達하고 있는데, 其中 科學技術 및 金屬工場 設備는 70%, 電氣 및 機械類의 輸入은 41%에 達하고 있다.

華國鋒은 社會主義經濟體制를 大災難속에 몰아 넣었던 4人幫이 除去된 以後 國家經濟는 '77年度에 相當히 好轉되었다고 하면서 工業部門의 生産增加率이 24%에 達했고, 其中 鋼鐵 67%, 石油 11%, 石炭 19%, 鐵道輸送能力이 22%나 大幅 增加하였다고 宣言하였고, 20世紀안에 4個의 現代化를 實現하기 위하여 外國技術 및 設備를 導入하고 있는 지금이 政策上 突破的 改変의 時期라고 宣言하고 있다. (註 28)

周邊情勢와 南·北間의 狀況이 이같은 양상으로 發展한다면 金日成의 北韓體制는 오히려 더욱 閉鎖化될 可能性이 있는데 그 徵候를 列挙하면 大略 다음과 같다.

첫째가, '76年度에 제정한 「어린이 保育教養法」과 '77年度의 「社會主義教育체제」는 오늘의 北韓의 젊은 世代에 人間改造를 劃策하고 있다. (註 29)

둘째로, 今年부터 實施한 2次 7個年計劃의 目標는 過去 北韓의 어느 經濟計劃보다 그 目標를 낮게 策定하고 있을뿐 아니라 推進

方法에 있어서도 国内資本과 国内資源을 中心으로 推進한다고 되어 있다.

세째로, 過去의 經濟計劃에서 볼때 새로운 經濟計劃을 着手하던 첫해에는 항상 國家予算의 大幅的인 增加現象을 볼 수 있는데, 今年度の 國家予算은 前年度에 比하여 크게 擴大된 것이 없다.

더욱이 '60年代의 中半期, '67 ~ '70年度까지의 7個年計劃期間中 予算의 增加率이 平均 14.2%에 達했으나, 6個年計劃期間中 오히려 平均增加率이 12.0%로 下落하고 있으며, '76年 對 '77年을 보면 9.9%로 더욱 떨어지고 있는 現象을 볼 수 있다.

(表-13)

이와같이 国内資本動員의 어려운 狀況에도 不拘하고 自体資源과 内部蓄積으로 2次 7個年計劃을 수행하자니, 結局 成長率을 낮추지 않을 수 없고, 同時에 計劃期間을 延長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같은 狀況에서 보면 80年代後半期에 가서는 南·北韓의 国力이 더욱 현격한 差異를 야기시킬 것이 分明하고, 金日成, 金正一體制가 持續하는 限, 오히려 北韓體制는 더욱 閉鎖化될 可能性이 있을뿐 아니라 全体經濟의 運營計劃, 産業間 投資의 配分, 輸出入貿易政策, 國防費 等 어느하나도 大幅的인 變化가 야기될 조짐이 稀薄하다고 볼 수 있다.

(2) 政治체제의 變動이 있을 경우

北韓체제의 基本的인 原動力은 政治이다. 經濟와 經濟政策

(表-13) * 予算에 의한 国民所得 * 趨勢에 따른 国民總生産 推定

(单位: 만원)

年 度	予 算	国民所得 [※]	比重예 / 국	国民所得 × 91 % (国民總生産)		
1949	192.62	977.32	20.22	889.36		
53	527.27	668.0	78.92	607.88		
56	995.7	1,405.3	55.05	1,278.82		
平均 成 長 率 (11.6 %))	59	1,715.60	3,097.6	55.38 (4.46)	2,818.81	平均 成 長 率 (7%)
	60	1,967.51 (14.6%)	3,287.6	59.84 (4.67)	2,991.71 (6.1%)	
	61	2,400.00 (21.9%)	3,720.0	64.51 (1.52)	3,385.2 (13.1)	
	62	2,728.76 (13.6%)	4,132.0	66.03 (3.51)	3,760.12 (11.0)	
	63	3,144.82 (15.2%)	4,522.0	69.54 (0.79)	4,115.02 (9.4)	
	64	3,498.78 (11.2%)	4,974.0	70.33 (1.49)	4,526.34 (9.9)	
	65	3,593.84 (2.7%)	5,003.5	71.82 (2.22)	4,553.18 (0.5)	
	66	3,671.50 (2.1%)	4,958.4	74.04 (0.76)	4,512.14 (-1)	

年 度		予 算	国民所得 [〃]	比重예 / 千	国民所得 [〃] × 91% (国民総生産)	
平均 成長 率 (14.2 %)	67	4,106.63 (11.8)	5,490.14	74.80 (1.76)	4,996.02 (10.7)	平均 成長 率 (7 %)
	68	5,023.70 (22.3)	6,561.78	76.56 (0.40)	5,971.21 (19.5)	
	69	5,319.03 (5.8)	6,911.42	76.96 (0.75)	6,289.39 (5.3)	
	70	6,232.20 (17.1)	8,019.81	77.71 (1.11)	7,298.03 (16.0)	
平均 成長 率 (12.0 %)	71	6,357.35 (2.0)	8,065.65	78.82 (0.76)	7,339.74 (0.5)	平均 成長 率 (10.7 %)
	72	7,430.30 (16.8)	9,336.89	79.58 (1.76)	8,496.57 (15.7)	
	73	8,560.04 (15.2)	10,523.77	81.34 (0.40)	9,576.63 (12.7)	
	74	10,115.25 (18.1)	12,374.30	81.74 (0.75)	11,261.16 (17.5)	
	75	11,586.30 (14.5)	14,045.70	82.49 (1.11)	12,781.58 (13.5)	
	76	12,513.21 (8.0)	14,967.35	83.60 (0.76)	13,620.83 (6.5)	
	77	13,762.15 (9.9)	16,313.59	84.36 (0.76)	14,845.37 (8.9)	

- 59~66年 北傀発表의 趨勢
- 67年以後 59~66年 趨勢의 절반을 적용, 추산
- 北傀概念 国民所得 × 0.91 = 通常概念의 国民総生産 (GNP) : 一說

은 政治權力을 掌握한 金日成集團의 政治的 目的을 수행하기 위하여 運營되며, 軍事力도 이제껏 그들의 政治路線을 保衛하기 위하여 動員되어왔기 때문에 現在와 같은 金日成體制가 持續되는 限, 北韓의 體制와 政治路線이 變化할 可能性은 短期的으로는 거의 없고, 長期的으로도 相當히 稀薄하다고 보아야 하겠으나, '80年代 後半期에 가서 金日成이 退陣하고 過去의 蘇聯과 오늘의 中共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같이 專門家 中心의 集團指導體制가 대두하면 狀況은 달라질 것이다.

오늘날 北韓에서 야기되고 있는 經濟的 問題點, 即 「內延的 成長」에서 「集約的 成長」으로의 轉換過程에서 야기되는 이같은 여러 가지 經濟的인 問題點은, 장차 南·北間의 国力隔差라는 視角에서 볼때, 1次的으로 解決을 要請하고 있는 課題일 뿐 아니라, 中·蘇 3角關係에 있어서도 現在 北韓은 日·中共條約의 結果로 因하여 重大한 問題에 直面하고 있는데 長期的으로 볼때, 日·中共條約의 結果로 中·蘇 友好同盟條約이 廢棄되는데 있다.

北韓은 現在 中共과 蘇聯, 各各 軍事同盟을 맺고 있는데 이 두 軍事同盟은, 美國과 韓國, 日本을 겨냥한 것으로 지금까지 中·蘇友好同盟條約의 保證을 받아왔다. 그러나 日·中共條約이 締結되고 中·蘇條約이 廢棄됨에 따라 이제 中共·北傀軍事同盟은 蘇聯을 겨냥하고, 北傀, 蘇聯의 軍事同盟은 中共을 겨냥하는 條約으로 變하게 되었는데, 이는 곧 中·蘇사이에서 줄타기外交를 하고 있는 北韓으로서는 심각한 矛盾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北韓이 蘇聯을 버리고 中共陣營에 合流하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이제껏 北韓의 武器體系는 주로 蘇聯에 依存하고 있으며, 中共은 이를 代身할 能力이 없었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볼때 中共의 近代化는 北韓에도 相當한 影響을 줄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같은 中共이 現在 西方社會에 急進的으로 門戶를 開放하고 있을뿐 아니라 近代化作業을 急激히 追求하는 양상을 볼때, 北韓의 權力構造의 變化는 開放社會로의 轉換과 不可分의 關係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體制全體的인 側面에서 볼때, 적어도 現在와 같은 경직적인 1人偶像化 現象은 完全히 사라지고, 經濟計劃의 側面에서도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는 크게 緩和되어 지난 '60年代 後半期의 Rumania의 경우처럼 「保守的 分權化」路線이 予想된다.

Rumania의 경우 經濟改革은 蘇聯, Poland型的 保守的 分權化 路線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西方諸國과의 貿易에 對한 依存度가 높기 때문에 對外貿易面에서의 制度의 改革은 相當한 進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69年度에 外國貿易省의 權限을 大幅的으로 生産企業에 移讓하였으며 1971年度에는 對外貿易法을 制定하여 貿易活動과 生産企業들에 各種裁量權을 賦與한 바 있는데, 이點 資源이 貧困하고, 國內資本의 蓄積度가 낮으면서 強力한 軍事力을 同時에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北韓의 경우 開放社會로의 要請은 必然的인 事實이 아닐 수 없다.

다음 둘째로, '70年代 初半期의 Poland의 경우처럼, 經濟成長의

停滯下에서 政治的 自由化的 움직임에 呼應하여 利潤動機의 機能을 擴大시킬 것이 予想되는데 賃金 및 價格을 生産費의 變化에 対応시키는 「準市場關係」(Quasi-market Relation)의 導入이 予想되고 있는데, Poland의 경우에 있어서도 企業의 獨立性を 確立하고 그 前段階로서 準市場關係를 導入함으로써 中央集權的 經濟計劃體制를 分權的 經濟體制로의 轉換을 試圖하였고, 이러한 情勢를 背景으로 하여 1965 ~ '66年度에는 分權化政策路線이 政府의 公認된 政策으로 登場하였으나 Poland共産党的 指導層은 經濟改革에 미온적인 保守派로 構成되어 있기때문에, 더 以上の 積極的인 進展은 없었는데,北韓의 경우에도 價格統制權의 中央計劃當局의 保有問題라든가 「工場黨委員會의 運營」(大安事業體系) 등에 많은 신축성이 부여될것이 予想된다.

세째로, '85年度까지 現在 北韓이 歲出予算規模를 年平均 12%씩 增加한다는 것은 무리이나 이같은 경우에 限해서도 GNP規模는 9%增加가 予想되는데(表14) 이와같은 경우 南·北韓의 經濟規模는 거의 8:1이 予想되고 있다. 이러한 狀況은 거의 必然的으로 西方諸國과의 經濟的인 協力關係를 強要하고 있는데 오늘날 大部分의 共産圈諸國의 경우 「實質貿易量」과 「潛在貿易量」의 差異가 거의 1:3이라는 比率을 볼때,北韓의 輸出規模도 거의 40~50億弗 水準에 達하여 貿易依存度는 크게 늘어날것이 予想되고 있기 때문이다.

(表-14) 長期予測値

(單位：100萬圓)

年 度	予 算 (12.0%)	国 民 所 得 (85%)	国 民 総 生 産 (国民所得×91%)
1978	15,413.60 (6,503.62)	18,133.64 (7,651.32)	16,501.61 (6,962.70)
1979	17,263.23 (7,284.06)	20,309.68 (8,569.48)	18,481.80 (7,798.22)
1980	19,334.81 (8,158.14)	22,746.83 (9,597.81)	20,699.61 (8,734.01)
1981	21,634.98 (9,128.68)	25,476.44 (10,749.55)	23,183.56 (9,782.09)
1982	24,253.57 (10,233.57)	28,533.61 (12,039.49)	25,965.58 (10,955.94)
1983	27,163.99 (11,461.59)	31,957.63 (13,484.23)	29,081.44 (12,270.64)
1984	30,423.66 (12,836.98)	35,792.54 (15,102.33)	32,571.21 (13,743.12)
1985	34,074.49 (14,377.42)	40,087.63 (16,914.61)	36,479.74 (15,392.29)
1986	38,163.42 (16,102.70)	44,898.14 (18,944.36)	40,857.30 (17,239.36)
1987	42,743.03 (18,035.03)	50,285.91 (21,217.68)	45,766.17 (19,308.08)
1988	47,872.19 (20,199.23)	56,320.22 (23,763.80)	51,251.40 (21,625.06)

1 분 : 2.15 北僞圓 (22,266)

(26,195)

(23,837)

1 분 : 2.05 北僞圓 (23,352)

(27,473)

(25,000)

(1) 1978年度 予算은 152億9,320萬원으로 發表되었으나 決算은 1979年4月以後 밝혀짐. 予算과 決算間에는 1.2% 정도 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978年度는 단순증가치를 그대로 使用 하였음.

(2) 北傀概念의 国民所得은 通常概念의 国民總生産에 비하여 間接稅形態의 去來取入金이 과대하게 높은 반면 (35~55%), 순 수색서비스(輸送, 通信은 包含됨), 減價償却等이 除外되어 있어서, 이들을 감안하면 北傀概念의 国民所得에서 約9%를 제하면 通常 概念의 国民總生産이 됨.

(3) ()는 弗貨表示임. 1弗 : 2.37 北傀원 적용

(4) 1976年版 EUROPA年鑑에는 基本率(basic rate)은 1對 1. 觀光率(tourist rate)은 1弗當 2.05원, 貿易率(trade-rate)은 弗當 3,048원으로 나와있고, 日本貿易進興會(JETRO) 刊 行 ASIAN year Book (76年版) 北傀偏에는 파운드當 5.55 北傀 원으로 나와 있음.

대체로 이와 같은 現況을 綜合하여 볼때 北韓의 体制과 追求 하고 있는 政策의 基本路線은 長期的으로 볼때 權力構造의 變動 과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는데, 金日成, 金正一體制가 持續되는 限, 短期的으로나 長期的으로나 크게 變化를 야기시킬 要因은 적 으며, 다만 經濟, 軍事 및 國際關係에서 極히 制限된 範圍內에서 部分的인 變化가 예상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볼때, 金日成權力体制에 變化가 야기된다면 体制全体에 對한 變動의 幅은 크게 擴大될 것이 予想되고 있는데, 今後 數年은 「緩衝期」로서, 金日成政權은 그들社會, 經濟, 軍事等 여러 側面으로 부터 實用主義路線에 對한 挑戰에 直面하게 될 것이며, 이같은 葛藤은 앞으로 繼續 激化될 것이 予想된다.

왜냐하면 現在 蘇聯과 東歐諸國全体를 볼때, 集約的인 國內成長政策의 指向으로 因하여, 今後 東·西間의 經濟協力關係는 不可避하게 強化될 것이 予測되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 '75年度의 경우 東歐諸國의 對外經濟協力關係는 그範圍가 顯著하게 增大되었으며, 幅과 深度에 있어서도 커다란 成果를 挙우고 있는데, 「스타비노크」(Stavinsk) 教授의 見解에 依하면 東·西交易의 潛在的인 發展可能性을 充分히 利用하기 위하여서는 Comecon 國家들의 經濟構造가 더욱 高度化되고 對外貿易의 地域構造가 特殊市場에 適應할 수 있도록 貿易과 生産構造의 根本的인 改善을 主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註 -

註(1) Joseph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4 Edition, George Allen & Unwin, LTD, London

註(2) Walter Rostow: Process of Economic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註(3) 朝鮮勞動黨 歷史研究所, 金日成選集 第四卷
朝鮮勞動黨 出版社.

註(4) 自由主義的 改革에 對한 要求는 Starlin 死亡 以後부터 꾸준히 있어 왔는데 Liberman은 이미 1948年, 「모스크바」에서 열린 經濟學者會議에서 利潤의 概念 및 그 導入의 必要性에 關한 意見을 開進한 바 있었으나 Starlin 死亡 以後 그의 意見이 容認된 것은 1962年9月, 그의 論文이 Pravda 紙에 發表되고, Khrushchev에 依해서 支持된 以後부터였다. J. Wilczynski, Profit, Risk and Incentive under Socialist Economic Planning, 1973, pp. 11

註(5) 實際에 있어서의 改革은 「유고」(1950 ~ '52)를 除外한다면, 「헝가리」(1953 ~ '54), 「체코」(1953 ~ '54), 東獨(1954 ~ '55), 「폴란드」(1956 ~ '57)等 相對的으로 所得水準이 높은 國家들이 先頭에 섰다. 이들 4個國의 1970年度 1人當 GNP는 1,250弗로서, 「루마니아」, 「유고」, 「불가리아」等 3個國의 同年 1人當 GNP 720弗 水準을

約2倍나 上廻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註(6) 金日成, 全國教育者들에게 보내는 「메세지」 1978年7月参照.
1978年, 金日成 9.9節 연설문 內容参照.

註(7) W.Wilczynski는 1單位의 國民所得增加를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的인 增資支出規模의 國別比較를 보면, 1961~'63年度의 경우 「체코」의 경우 11.7, 東獨 6.1, 「폴란드」 5.3, 蘇聯의 경우 3.6으로서 西方諸國에 比하여 顯著히 높은 現象을 볼수 있다.

註(8) W.Wilczynski, Socialist Economic Development and Reforms, 1972, p.25.

註(9) O.Lange는 利潤이라는 「카테고리」는 社會主義企業에 있어서도 남아있지만 그것은 資本主義經濟體制에서와 같이 企業活動의 궁극적인 目標은 아니고, 그代身 經濟計劃에서 設定한 巨視經濟目標達成에 奉仕할 手段으로 變身하였고, 이같은 利潤은 目標達成을 위한 誘因으로서, 또는 效率의 尺度로서 可能하다고 보았다.

O.Lange, Political Economy, 1959, English Translation, 1963, Vol.1, p.178

東獨은 1964年, 「폴란드」 65年, 蘇聯은 66年, 「체코」

68年度에 各各 利潤制度를 導入하였다. J.Wilczynski,

Profit, Risk and Incentives under Socialist Economic Planning, p.18.

註(10) 蘇聯의 5次 5個年計劃中 投資比率

重工業 90%, 6次 5個年計劃 87%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2次大戰以前의 3次 5個年計劃期間中은 84%를 차지하고 있음.

Radoslaw Selucky,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Translated by Zdenek Elias, New York, 1972, p.54.

註(11) Ravi I. Gulhati, The Need for Foreign Resources, [Absorptive Capacity and Debt-Servicing Capacity], Paper for I.E.T. Conference on Capital Move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註(12) Marx는 Ricard가 展開한 資本主義的 自由貿易을 強力히 批判하였는데, Marx는 資本主義라는 條件 밑에서 世界貿易은 後進國을 搾取하고 값싼 原料의 供給과 食糧을 供給하는 地位로 後進國을 끌어 내릴 機會를 先進國에 提供한다고 批判함. Tibor Kiss,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in Open Economies, 1974.

註(13) '66年 黨代表者會議에서 北韓은 오늘의 조성된 精勢는 社會主義建設과 더불어 軍事力의 繼續的인 強化가 要求됨으로서 自衛的인 軍事路線을 관철한다고 되어 있으나, 限定된 資源을 軍事費로 돌린다는 事實은 經濟建設을 더욱 어렵게 할 制約要因을 形成하고 있다.

註(14) 財政制度의 兩北韓 比較, 國土統一院, 1977, pp.18.

註(15) 社會主義經濟體制에 있어서 國家預算(State Budget)은 보통 統合預算(Consolidated Budget)를 意味한다.

Alec Nove, The Soviet Economy, 3rd Revised Edition, 1968, pp.11.

註(16) 北韓에서는 歲出預算이 그들 GNP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거의 85%에 達하고 있는데, '74年度 現在 蘇聯의 경우 54.9%, 「헝가리」 70%, 「폴란드」 44.6%, 「체코」 58.1%等 經濟體制的 生産성에 따라서 상당한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U.N Statistical year Book, Vol.4, 1967.

Martin Schnitzer, East and West Germany, A Comparative Economic Analysis, 1972, p.260.

註(17) 社會主義 經濟體制는 歲入의 主된 收入手段이 되어있는 去來稅나 企業利潤의 納付가 生産手段이 社會化되어 있다는 條件下에서 當然히 預算에 歸屬되는 分配物이라고 생각하여 租稅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住民에 對한 直接稅를 廢止하기 直前인 '73年度 預算收入에서 直接稅인 住民稅는 2%미만 이었다.

註(18) 私的 經營의 소멸은 個人商工業者만이 아니라 農民들의 直接的인 犧牲을 強要하게 되는데 그치지 않고 勤勞者에게도 賃金 фонд의 範圍內에서 賃金率을 定하는 한편, 勞動基準量이 設定되고 生産目標은 어떠한 犧牲을 무릅쓰고라도 完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強制勞動의 導入을 意味하고 있다.

註(19) 農産物 收買價格은 낮게 策定되고 收買機關의 收買價格과 販賣價格(工業部門等에) 間에 差額은 去來稅로 흡수되기 때문에, 낮은 收買價格은 農民에 對한 過少支拂을 나타내고 反面에 營農資材만이 아니라 農家의 消費材에는 모두 去來稅가 부과되어 農民의 追加負擔을 發生시키게 된다.

註(20) Rostow 教授에 依하면 「跳躍段階」(Take-Off Stage) 以前에는 상당히 많은 部分이 社會間接資本部門에 投資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Canada의 경우 跳躍段階인 1,900 ~ '15 年間に 社會間接資本의 形成은 總固定資本形成의 70.6%에 達하였다고 한다.

Walter W. Rostow,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註(21) 北韓의 年代別 經濟計劃 期間別 基本建設投資額中 重工業과 輕工業部門間的 投資比率은 7 個年計劃期間中 43.5 : 14.5 이고, 6 個年計劃期間中 40.7 : 8.3 으로서 오히려 輕工業部門의 投資의 比重이 감소하고 있는 趨勢에 있음.

註(23) Ravi I. Gulhati, The Needs for Foreign Resources, [Absorption Capacity and Debt-Servicing Capacity], Paper for A Conference on Capital Move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1972.

註(24) 韓國의 경우 1962 ~ '77 年間 GNP의 年平均 成長率 9.8%에 比하여 社會間接資本部門의 成長率은 16.3%에 達

하고 있으며, '70年度 總投資額中 社会間接資本部門의 比率
이 37.5%로 나타나 있다.

註(25) J.Wilcznski, Socialist Economic Development and Ref-
orms, 1972, p.25.

註(26) 外延的 成長이란 生産要素의 量的인 增加에 依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고, 이에 反하여 「內延的 成長(Intensive Grow-
th)은 資本의 効率的 利用, 土地生産力의 增加等 勞動生産
性의 上昇으로 因한 増大를 말한다. J.Wilcznski, OP.
Cit, p.26.

註(27) 蘇聯의 2次 5個年計劃期間中 重工業과 輕工業間의 投資比率
은 4 : 1이었다.

New Direction in the Soviet Economy, Studies prepar-
ed for the Subcommittee on Foreign Economic Policy,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
ate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6.

註(28) 華国鋒은 財務工作會議에서 文革時期的 「經濟平均主義」를
代身하여 實際狀況에 맞는 「客觀的 經濟法則」의 實踐을
強하고 있는데, 中共은 現在 '85年度에 끝나는 建設計劃에
120個의 大型基本設計를 準備하고 있다. 따라서 中共은
大外貿易借款을 増大시키고, 海外華僑들의 送金을 유치하고
觀光事業까지 推進하고 있는데, 지난 10月1日, 中央政權樹立
29周年을 맞은 華国鋒은 또 다시 「모든 理念과 體制를

초월하여 外國으로 부터 技術과 資本을 本格的으로 導入하는 「第2의 文化革命」을 宣言한 바 있다.

註(29) 金日成이 '77年9월에 採択한 社會主義教育体制의 特徵은 人間改造를 劃策하기 위하여 「파브로프」의 條件反射論에 立脚한 反復式 教育에 力點을 두고 있는데, 再教育体系의 確立과 함께 每日 2時間 學習을 정상화 할 것을 強調하고 있다.

